

채 규 만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부부갈등이 아동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대처효율성의 조절효과-

2005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심리학과

임 수 진

# 부부갈등이 아동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대처효율성의 조절효과-

채 규 만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04년 11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심리학과

임 수 진

# 인 준 서

임수진의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_\_\_\_\_인

심사위원\_\_\_\_\_인

심사위원\_\_\_\_\_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대처효율성의 조절효과-

2005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심리학과

## 논문개요

본 연구는 아동이 지각한 부부갈등이 아동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아동의 대처효율성(coping efficacy)이 조절효과(moderating effect)를 갖는지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조사대상자들은 서울 및 경기도 지역 소재 초등학교 5, 6학년에 재학 중인 남녀 학생 391명(남자 210명, 여자 181명)이었다. 조사대상자들은 연구절차에 따라 Gryth와 Fincham(1993)의 '아동이 지각한 부부갈등척도(The Children's Perception of Interparental Conflict Scale: CPIC)'를 권영옥과 이정석(1997)이 한국판으로 표준화 한 것과 CPIC의 하위척도인 '대처효율성 척도', 그리고 Achenbach(1991)의 '아동, 청소년 자기보고식 문제행동척도(Youth Self Report: YSR)'를 오경자 등(1991)이 번안하여 표준화한 K-YSR 등으로 구성된 설문지를 작성하였고, 조사된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 빈도분석, 교차분석, 상관분석,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의 내면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과 아동이 지각한 부부갈등 및 대처효율성 간의 정적인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즉, 부부갈등을 많이 지각할수록 내면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을 많이 보였고, 대처효율성이 낮을수록 문제행동을 많이 보인다. 또한 부부갈등을 많이 지각할수록 대처효율성이 낮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둘째, 아동이 지각한 부부갈등과 아동의 내면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 간의 관계에서 대처효율성의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여아에서는 부부갈등과 대처효율성이 아동의 내면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주 효과와 부부갈

등과 대처효율성의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즉 부부갈등이 아동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대처효율성의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남아에서는 부부갈등과 대처효율성이 아동의 내면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주 효과는 나타났지만, 부부갈등과 대처효율성의 상호작용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므로 남아의 대처효율성은 부부갈등과 남아의 문제행동 사이에 조절효과를 갖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아동이 부부갈등 상황에 노출되었을 때 부적응적으로 나타나는 아동의 문제행동을 줄이기 위해 아동이 가지고 있는 대처효율성이라는 보호요인을 연구했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따라서 아동이 부부갈등 상황에서 적응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대처효율성을 높여주어야 한다. 즉, 부부갈등이 있는 가정환경에서 자라는 아동의 내면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을 예방하는 데 있어서 대처효율성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 목 차

논문개요	1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이론적 배경	7
1) 부부갈등과 아동의 문제행동	7
2) 아동에게 유해한 부부갈등의 속성	8
3) 부부갈등과 아동의 문제행동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메카니즘	13
4) 아동의 문제행동에 대한 부부갈등의 영향을 조절하는 변인들	24
5) 부부갈등이 아동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조절하는 변인으로서의 대처효율성	34
3. 연구문제 및 가설	39
II. 연구방법	40
1. 연구대상	40
2. 측정도구	43
1) 자녀가 지각한 부부갈등 척도	43
2) 대처효율성	44
3) 문제행동	44
3. 자료수집 절차	45
4. 자료의 처리 및 분석	45

Ⅲ. 연구결과 .....	46
1. 부부갈등과 대처효율성, 문제행동 간의 상관관계 .....	46
2. 부부갈등과 아동의 문제행동에 대한 대처효율성의 조절효과...	47
Ⅳ. 논의 및 제언 .....	54
1. 논의 및 결론 .....	54
2. 연구의 제한점 및 제언 .....	58

참 고 문 헌

ABSTRACT

부        록

## 표 목 차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	41
<표 2> 연구대상자의 부모에 관한 특성 .....	42
<표 3> 변인들의 평균, 표준편차 및 상관관계 : 전체표본 .....	46
<표 4> 변인들의 평균, 표준편차 및 상관관계 : 남아 .....	47
<표 5> 변인들의 평균, 표준편차 및 상관관계 : 여아 .....	47
<표 6> 내면화 문제행동에서 대처효율성의 조절효과 .....	48
<표 7> 외현화 문제행동에서 대처효율성의 조절효과 .....	49
<표 8> 총 문제행동에서 대처효율성의 조절효과 .....	50

## 그림목차

<그림 1> 부부갈등이 아동의 문제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하는 과정을 설명하는 모델(Zimet과 Jacob, 2001) .....	14
<그림 2> 인지-맥락 모형(Gryth & Fincham, 1990) .....	16
<그림 3> 정서적 안정감 가설에 대한 개념화(Davies & Cummings, 1994) .....	19
<그림 4> 여아의 내면화 문제행동에서의 부부갈등과 대처효율성 간의 상호 작용 .....	51
<그림 5> 여아의 외현화 문제행동에서의 부부갈등과 대처효율성 간의 상호 작용 .....	52
<그림 6> 여아의 총 문제행동에서의 부부갈등과 대처효율성 간의 상호작용 .....	53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가정은 인간이 출생하여 양육되며 가족과 더불어 생활하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로, 가정환경은 아동에게 일차적이고 직접적인 환경으로 작용하며, 독립된 성인으로 성장해 가는 동안 개인의 정신건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박수잔, 1997). 부모가 제공하는 가정환경은 자녀의 발달에 커다란 역할을 하여 심리적으로 불안정하고 스트레스가 많은 가정환경은 아동의 발달 문제를 유발시킨다(Emery & O'Leary, 1982). 스트레스가 많은 가정환경이 아동의 발달 문제와 관련이 있다는 가설들은 부부갈등과 이혼(Emery, 1982), 가족의 경제적 스트레스(Conger, K. Conger, Elder, Jr. Lorenz, Simons, & Whitbeck, 1992; Conger 등, 1993), 부모의 정신병리(Rutter, 1979) 등을 포함하는 여러 영역의 연구들에 의해 지지를 받아왔다(우진영, 1998에서 재인용). 특히 부부갈등은 부모-자녀관계(Fauber & Long, 1991), 부모의 부부갈등에 대한 아동의 인지적 평가(Gryth & Fincham, 1990), 정서적 안정감(Cummings & Davies, 1994)에 부정적인 영향을 줌으로써 자녀의 적응과 발달을 저해한다(박영림과 최혜림, 2002).

부부갈등은 '부부가 서로의 대립과 불일치를 해결하기 위해 교환하는 관찰 가능한 부정적인 언어적, 비언어적 상호작용'이라고 정의되며 여기에는 가출, 언쟁, 신체적 싸움 등과 같은 다양한 행동책략들이 포함된다(Strauss, 1979; 이민식과 오경자, 2000에서 재인용). 부부갈등은 생후 6개월부터 청소년 말기에 이르기까지 연령과 상관없이 모든 아동과 청소년에게 정서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Cummings, Ballard & El-Sheikh, 1991). 또한 부모간

의 갈등으로 인해 아동이 행동적 또는 정서적 문제를 보일 가능성이 화목한 가정의 아동에 비해 2-5배가량 높다는 연구결과(Rutter, Yule, Quinton, Rowland, & Berger, 1975; Richman, Steavenson & Graham, 1982)는 부부갈등 상황이 자녀의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을 단적으로 말해준다(김윤희와 황순택, 2003). 부부갈등은 우울, 불안, 위축, 사회적 고립과 같은 내면화 장애(internalizing disorder)와 아동의 공격성, 불복종, 행동문제와 같은 외현화 장애(externalizing disorder)와 관련이 많다(Emery, 1982). 또한 부부갈등은 자녀의 낮은 자아존중감(Slater & Haber, 1984), 사회적 유능성(Emery & O'Leary, 1984) 및 인지적 능력(Long 등, 1987), 학업성취도(Long, Slater, Forehand & Fauber, 1988) 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부부갈등이 자녀의 정서행동문제와 직접 관련이 되어있을 뿐 아니라 부부간 갈등에 의해 부모-자녀 관계가 영향을 받고 이로 인해 자녀의 정서행동문제가 야기된다는 간접적인 영향에 대한 결과도 보고되고 있다(Farber & Long, 1991; Fauber, Forehand, Thomas & Wierson, 1990; Vincent, Harris, Plog, 1991; Harold & Conger, 1997). 따라서 부부관계가 좋은 화목한 가정에서 성장한 아동은 아동기와 청년기에 성공적인 발달과정을 밟음으로서 역량 있는 성인으로 성장하는 반면, 부부불화나 이혼 등을 경험한 아동은 심리적 황폐화와 가출, 비행 등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들을 일으키며 연령별로 주어지는 발달과업을 제대로 이행하기 어렵게 된다(현명호와 최문선, 2002).

부부갈등이 아동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주는 과정에는 갈등에 대한 자녀의 지각이 중요한 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부부간 갈등이 존재하더라도 아동에 따라 갈등에 노출되는 정도, 부부간 갈등을 지각하는 정도에 있어서 차이가 나며, 또한 부모의 결혼관계를 평가하는 것도 다르기 때

문에 자녀가 지각한 부부간 갈등을 측정하는 것이 중요하다(Mchale, Freitag, Crouter & Bartko, 1991). Gryth와 Fincham(1990)이 제안한 인지-맥락적 모델은 부부갈등이 아동의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아동이 부모의 갈등이라는 자극을 어떻게 인지적으로 처리하느냐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가정하였다. 즉, 부부갈등의 실제 양상보다 아동이 이를 어떻게 지각하고 평가하느냐가 아동의 발달과 적응 문제와 더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이민식과 오경자, 2000).

여러 연구들을 종합해 볼 때 많은 아동이 갈등환경에 노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높은 수준의 부부갈등은 이혼이나 별거로 이어질 수 있다(O'Brien, Margolin, & John, 1995). 이혼가정 아이들에 대한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들(Zimet & Jacob, 2001)을 보면, 부정적인 아동문제는 가족변인, 특히 이혼보다 부부갈등과 더 연관이 있다(Amato & Keith, 1991; Clarke-Stewart, Vandell, McCartney, Owen, & Booth, 2000; Emery, 1982; Rutter, 1971)고 한다. 부부갈등과 부부불화는 아동정신병리학에서 위험요인(risk factor)이 되며(Block, Block & Gjerde, 1986; Fincham & Osborne, 1993; Emery, 1982), 이혼 후에 부부사이에 갈등이 계속되면 아동의 부적응이 악화되었고(Hetherington, Clingempeel, 1989), 반면에 이혼 후 갈등이 줄어들면 아동의 행동문제는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Hetherington, Cox, & Cox, 1982). 이러한 부부간 불만족, 갈등, 폭력은 아동의 정서적, 행동적 부적응에 영향을 미친다(Davies & Cumming, 1994). 신체적인 공격성과 관련된 갈등은 아동을 동요시켜 행동 문제를 일으키게 하며(Cummings, Vogel, Cummings, & El-Sheikh, 1989; Cummings, Zahn-Waxler, & Radke-Yarrow, 1981), 부부 폭력은 아동폭력으로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Carlson, 1990; Kalmuss, 1984; Roy, 1977; Smith & Williams, 1992; Straus, Gelles & Steinmetz, 1980).

그러나 부부갈등 혹은 폭력으로 인해 모든 아동들이 행동적으로 혹은 정서적으로 적응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는다. Jouriles, Murphy와 O'Leary(1989)는 부부갈등에 노출된 아동과 이들의 문제행동 간의 강한 상관성이 있지만, 이들 중 50%는 임상적인 수준에서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는 증거를 내놓았다. 이러한 연구는 갈등이 있는 가정환경에서 성장하면서 접하게 되는 해로운 환경으로부터 아동이 자신을 보호하여 심리적 적응 문제를 막는 보호적 능력이 있음을 말해준다(O'Brien, Margolin, & John, 1995). 부부갈등을 지각하는 과정에서 아동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대처방식을 사용하게 된다. 아동은 갈등이 왜 발생했는지, 그들이 어떻게 반응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평가하게 되고, 잠재적인 대처 행동의 효율성에 대한 기대를 형성하게 된다(O'Brien, Bahadur, Gee, Balto, & Erber, 1997). 그리하여 아동은 부부갈등에 대처하기 위해 행동적인 반응을 하게 된다. 부부갈등에 대처하는 아동의 노력은 정서적, 인지적, 행동적 반응들이 상호 관련되어 나타난다(Gryth & Fincham, 1990; Lazarus & Folkman, 1984). 여기서 대처행동이란 스트레스 요인으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개인이 행하는 노력으로 스트레스 사건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오히려 성장을 촉진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Moos & Billing, 1982). 결국, 이러한 아동의 대처 행동은 부부갈등과 아동의 문제행동 간의 관계에 영향을 주게 된다(Cummings, Davies, & Simpson, 1994).

대처효율성(coping efficacy)이란 상황에 따라 유발된 요구와 정서에 대처하기 위한 일반적인 신념으로서 개인이 과거에 스트레스원에 잘 대처한 것과 미래에 직면할 것들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신념이다(Sandler, Tein, Mehta, Molchik & Ayers, 2000). 대처효율성은 다양한 상황에 대해 대처하는 역량을 측정하는 객관적인 개념이라기보다는 주관적인 평가이다(Zautra,

Reich & Nersom, 1995). 또한 사건의 원인에 대한 귀인이라기보다 스트레스원의 결과를 통제할 수 있는 개인의 신념이다(Nolen-Hoeksema, Girgus & Seligman, 1992). 따라서 대처효율성은 긍정적인 결과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 일반적인 신념이라기보다 긍정적인 결과를 야기시키는 개인적인 신념(Scheier & Carver, 1987)으로 사건의 결과에 대한 낙관주의와는 다르다. 아동의 대처효율성은 스트레스 상황 혹은 문제가 있을 경우와 같은 특정 사건에 대해 아동의 정서적인 반응이 일어날 때 지각된 대처 반응을 함으로써 정교화 된다. 이를 통해 아동은 스트레스 사건에 대한 정서적 상태에 대한 자기 조절력, 자기 효능감을 갖게 됨으로 특정 상황에 잘 대처하게 된다(Sandler, Tein, Mehta, Wolchik, & Ayers, 2000). 따라서 아동의 대처효율성은 아동이 부부갈등 상황에 얼마나 잘 대처하는지를 대변해 주는 변인으로서 아동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아동의 대처효율성은 부부갈등 상황에 대해 아동이 효과적, 긍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고 평가함으로 부부갈등이 아동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할 것이라고 사료된다.

부부갈등이 아동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됨은 틀림없다. 생후 6개월부터 청소년 말기에 이르기까지 모든 아동과 청소년이 부모의 갈등으로 인해 분노나 부정적인 감정을 느낀다(Shred, McDonnell, Church & Rowen, 1991). 일반적으로 부모간의 갈등은 초기 아동기부터 초기 청소년기와 같은 자녀 양육 시기에 심각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Anderson, Russel & Shumm, 198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동에서 청소년기로 넘어가는 시기인 후기 아동기를 대상으로 부부갈등이 이들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아동이 성별에 따라 부부갈등을 지각하는 정도, 아동에게서 나타나는 문제행동 유형에 차이에 대한 상반된 연구결과들이 공존하고 있다

(Purcell, & Kaslow, 1994). 그리고 부부갈등과 같은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방식에서 여아가 더 방어적이라는 연구(이현정, 1997)가 있는 반면 여아가 남아보다 더 적극적으로 대처한다는 연구(정영숙과 정승희, 1996) 등 성별에 따른 대처행동에 대한 결과들 또한 불일치하고 있다(박진아, 2001). 따라서 본 연구에서 부부갈등이 아동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처효율성의 효과에 대한 성별의 차이를 알아보고자 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부부갈등이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대처효율성의 조절효과를 알아봄으로서 아동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요인을 심층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이로써 부부갈등이 아동의 문제행동을 야기시키는 과정에 치료적으로 개입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 2. 이론적 배경

### 1) 부부갈등과 아동의 문제행동

부부는 일반적으로 성장과정, 가정환경, 교육 배경 등 생활환경과 경험이 다른 남녀의 결합이기 때문에 결혼생활의 과정에서 상호간의 가치관과 지적 판단의 차이로 인해 어느 정도의 갈등과 충돌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가부장적 전통과 개인주의적이고 평등한 가치관의 혼재, 급속한 사회 변화, 고도의 기술적 진보와 핵가족의 증가 등은 부부 간의 갈등을 유발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양희정, 1999). 이처럼 부부간 갈등은 가족 내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상황으로 정상적인 가정생활의 일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가족 내에서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하며 적응 능력을 배우는 아동은 부모 간의 불화에 매우 민감하여 자신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피해를 입거나 실질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Gryth & Fincham, 1990). 아동에게 해로운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요인 가운데 이러한 부부갈등이 많은 연구의 초점이 되어왔다.

부부갈등에 대한 초기 연구에서는 이혼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을 주로 다루었다(Hetherington 등, 1982; Long 등, 1988; 양희정, 1999에서 재인용). 동시에 이혼과 부부불화 중 어느 것이 아동의 부적응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도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이혼 가정의 아동과 정상가정의 아동을 비교한 연구들에서 아동의 부적응 문제는 부모의 이혼 그 자체 때문이 아니라 이혼에 수반되는 부부간의 갈등이 더 큰 원인임이 밝혀졌다(Emery, 1982; Hetherington 등, 1982; Long, Forehand, Fauber, & Brody, 1987).

이후 많은 연구들을 정리해볼 때, 부부갈등과 아동의 문제 사이의 관련성을 지지하는 연구들이 많다. 아동문제는 외현화 문제(예,品行장애, 공격성, 비행/반사회적 행동), 내면화 문제(예, 우울, 불안, 위축), 그리고 형제자매문제, 또래관계문제(Stocker & Youngblade, 1999), 인지적, 학업적 문제(Gryth & Fincham, 1990)와 관련이 있다.

그 중에서도 많은 연구자들이 관심을 가져온 측면은 부부갈등이 아동의 정신병리적 증상이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이었다(Emery, 1982; Gryth & Fincham, 1990; Davies & Cummings, 1994; 이민식, 1999에서 재인용). 아동의 임상적인 부적응 문제에서 아동의 병리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결과들을 감안할 때 아동의 문제는 보편적으로 내면화 문제와 외현화 문제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내면화 문제는 아동의 문제가 주로 심리 내적인 억제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우울, 불안 위축, 신체화 증상과 같은 것들이다. 반면에 외현화 문제는 아동이 감정이나 행동의 적절한 억제가 결여되어 표출되는 문제들로서 공격성, 충동성, 비행 등의 문제행동들이 포함된다(Achenbach & Edelbrock, 1983; 이민식, 1999에서 재인용).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대표적인 문제행동인 외현화 문제행동과 내면화 문제행동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 2) 아동에게 유해한 부부갈등의 속성

부부갈등은 다양한 측면을 지닌 개념으로 그것이 얼마나 자주 발생되는가, 부부간의 불화가 어떻게 표현되는가, 무엇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는가, 갈등의 결과가 어떠한가 등 다양한 양상을 보일 수 있다. 즉, 부부갈등의 빈도, 강도, 내용, 해결 등 여러 가지 속성을 지니고 있으며, 이에 따라 아동에게

더 유해한 갈등 양상 혹은 덜 유해한 갈등 양상으로 구분할 수 있다(Gryth & Fincham, 1990; 이민식, 1999)

### ① 갈등의 빈도

아동이 자주 갈등상황에 노출될수록, 아동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장애 행동을 보일 경향이 높으며, 후에 갈등에 또 노출되었을 때, 과잉 반응(heighthened reactivity)을 보이기 쉬우며 불안정 애착을 형성하게 된다(Cummings, Zahn-Waxler, & Radke-Yarrow, 1981). 또한 부부갈등의 빈도가 증가하면 아동은 학습과 배우는 데 있어서 부적절한 사회적 행동을 하는 경향을 보이게 된다(Zimet & Jacob, 2001). Cummings, Iannotti와 Zahn-Waxle(1985)는 두 성인간의 갈등을 계속 목격한 아동들이 그 후에 같은 또래의 놀이 상대에게 공격성을 더 많이 나타낸다는 실험연구 결과를 보여 주었다. 이에 대해 Davies와 Cummings(1994)는 아동이 부모의 갈등을 더 많이 경험할수록 또 다른 갈등 상황에 대해 둔감해지기 보다는 오히려 민감해져 더 많은 정서적, 행동적 문제를 일으킨다는 “민감화 가설(sensitizing hypothesis)”로 이런 현상을 설명하였다.

그러나, 갈등의 빈도만을 독립적으로 고려하는 것은 매우 단순하며, 아동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없다고 비판받는다(Goodman, Barhoot, Frye, & Belli, 1999). 그리하여 부부갈등의 다른 차원들도 고려해야만 한다.

### ② 갈등의 강도

갈등 강도의 수준은 조용한 토론에서부터 신체적인 폭력까지 다양하다(Gryth & Fincham, 1990). 많은 연구들에서 높은 강도의 갈등, 특히 신체적

인 공격과 연관되는 갈등은, 아동에게 정서적인 문제(Davis & Cummings, 1994), 사회적 기술 부족(Wolfe, Jaffe, Wilson, & Zak, 1985), 그리고 행동문제를 보이는데, 이는 이혼 후 2년이 지나서 까지도 나타난다(Cummings, Vogel, Cummings, & El-Sheikh, 1989; Johnston, Gonzalez, & Campbell, 1987)고 하였다. 부부간의 갈등이 언어적이건 신체적이건 모두 아동의 내면화 또는 외현화 문제와 상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외현화 문제의 경우는 신체적 폭력의 형태가 언어적 형태의 갈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Fantuzzo, DePaola, Lambert, Martino, Anderson & Sutton, 1991). 특히 갈등의 강도는 부부간의 갈등이 단지 부부간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부모의 공격성이 아이에게 향할 수 있다(Jouriles, Baring, & O'Leary, 1987)고 하여, 부부갈등의 강도가 아동에게 유해함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갈등의 강도가 아이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가는 명확치 않다. Howes와 Markman(1989)은 갈등의 강도에 상관없이 갈등이 일어난 후에 부모의 갈등 조절(management)과 적합한 의사소통 기술은 아동에게 안정감을 준다고 하였다. 반면에 Harold와 Conger(1997)는 아이들은 적절한 부부갈등을 관찰하면서 아동들의 대처 전략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고, 아동들이 후에 그들의 삶에서 갈등을 해결하는 기술을 가질 수도 있을 것이라 했다.

### ③ 갈등의 내용

갈등의 내용은 가족의 특성, 시간에 따라 다양하며, 특정한 주제들이 크게 혹은 적게 아이들에게 위협을 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부갈등의 주제가 아동에 관한 것일 때, 아동은 더욱 무력감, 두려움, 그리고 부정적인

자기평가를 하는 경향이 있다(Gable, Belsky, & Crnic, 1992). 아동과 관련된 갈등 내용은 또한 아동에게 수치심, 죄책감을 느끼게 하고, 아동이 갈등을 해결해야 한다는 신념을 갖게 하며 아동 자신이 갈등에 말려드는 것 같은 두려움을 증가시킨다(Buchanan, Maccoby, & Dornbusch, 1991). 갈등이 매우 악화될 경우 아동은 갈등에 자신이 연관되어 있다고 느끼게 되며, 자신이 부부 간 긴장의 원인이라고 지각하여 갈등의 결과에 대해 책임감을 느낀다(Zimet & Jacob, 2001).

그러나 Gryth(1998)의 연구는 후기 아동기에 속하는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들에게 아동과 관련된 내용의 갈등이 긍정적인 결과를 보일 수도 있다고 하였다. 잠재적으로 부부갈등은 아동에게 큰 수치심, 죄책감과 우울을 가져오지만, 부부갈등에 대한 자기비난은 이러한 아동들에게 행동의 변화를 통해 훗날의 갈등을 제한하는 능력을 갖추게 함으로서 더 좋은 조절감을 갖게 할 수도 있다(Gryth, 1998). 갈등의 다른 차원들이 아동의 외현화 문제행동과 연관된다면, 아동과 관련된 내용은 우울, 불안과 같은 내면화 문제행동과 연관된다(Davies & Cummings, 1994).

#### ④ 갈등의 해결

갈등의 해결은 전혀 해결이 안 되는 것에서부터 해결되는 것까지의 연속적인 개념이다. 부모의 갈등이 효과적으로 해결되는 것을 본 아동은 부모의 부정적인 반응에서 덜 부정적인 것까지 관찰하게 된다(Davies & Cummings, 1994). 사실상, 많은 연구들에서 어른들 사이의 갈등이 있었다가 해결된 경우와 부부들끼리 서로 친밀하게 상호작용을 하는 어른들과 생활하는 아동의 반응을 관찰했는데, 그 차이가 없었다고 할 정도로 갈등의 해결을 목격하는 것은 아동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Cummings, Ballard,

El-Sheik, & Lake, 1991).

Davies와 Cummings(1994)는 해결된 갈등은 아이들에게 많은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갈등해결은 정서적 불안감을 줄이고, 높은 강도의 갈등으로 증가할 수 있는 잠재성을 줄이고, 아동이 현재 혹은 미래에 부부싸움에 연루될 가능성을 줄이고, 부모와 정서적인 교감을 나눌 수 있게 하며, 미래의 갈등의 해결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감을 갖게 하고, 가정에서 안정적인 지각을 증가시킨다. 반면에 부부사이의 분노가 해결되지 않으면 아동은 스트레스와 분노를 경험하며, 갈등이 해결되었을 때 보다, 훨씬 더 사건에 대해 부정적으로 지각하게 된다(J. S. Cummings, Pellegrini, Notarious, & Cummings, 1989).

이처럼 부부갈등에 대한 아동의 반응은 갈등의 속성 혹은 특성에 따라 다양하다. 아동은 부부갈등이 더욱 더 빈번하고, 강하며, 아동과 관련된 내용이고, 해결되지 않았을 때, 부정적인 영향을 경험하게 된다. 더욱이, 갈등의 지속성(Gryth & Fincham, 1990)과 갈등이 발생한 이유에 대해 아동을 비난한다면(Fincham, 1994), 아동의 문제행동에 더 큰 영향을 줄 것이다.

이러한 부부갈등과 아동의 문제행동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이 존재한다. 부부갈등을 예언변인으로 보고, 아동의 문제행동이 결과변인으로 할 경우, 두 변인 사이를 연결하는 변인으로 조절변인(moderator)과 매개변인(중재변인이라고도 함)(mediator)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부부갈등과 아동의 행동문제의 관계를 연결하는 이러한 변인들을 정리해 보고자 하였다. Zimet과 Jacob(2001)은 갈등과 아동의 문제행동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변인을 매개변인이라고 보았고, 이 관계를 한정하는 변인을 조절변인으로 보았다.

Baron과 Kenny(1986)는 매개변인(mediator)과 조절변인(moderator)변인을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매개변인은 두 변인 사이를 매개하는 변인으로서 중재(intervening) 혹은 과정(process) 변인이라고도 한다(Baron과 Kenny, 1986). 이는 예언변인(predictor)과 준거변인(criterion)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는 정도를 매개하는 변인이다. 그리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는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영향을 미치는 기제를 설명하려고 한다. 반면에, 조절변인은 독립변인(=예언변인)과 종속변인(=준거변인)의 관계의 강도나 방향에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 양적이거나(예, 성별, 인종, 계층 등) 혹은 질적인 것(예, 강화의 수준 등)이 있다. 이것은 주어진 종속 변인에 대해 최고의 효과를 줄 수 있는 독립변인의 부분으로서 하위변인이 되는 것이다. 매개변인은 외부의 물리적인 사건이 내적인 심리상태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를 설명한다. 조절변인은 특정한 효과가 유지될 때 사용되는 반면, 매개변인은 그러한 효과가 어떻게, 왜 일어났는지를 설명한다(Baron & Kenny, 19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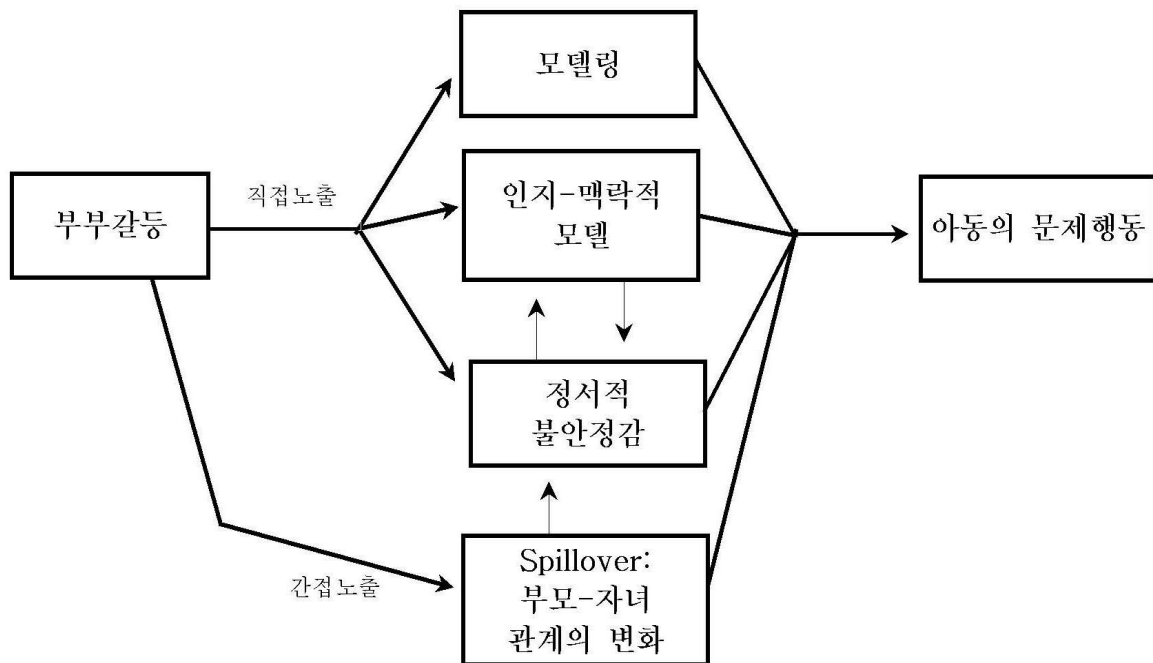
그러므로 이 두 변인들을 정리해 봄으로써 부부갈등과 아동의 문제행동 간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좀 더 심층적으로 파악해 보고자 한다.

### 3) 부부갈등과 아동의 문제행동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메카니즘

부부갈등은 아동에게 직접적, 간접적으로 영향을 준다. 모델링은 직접적으로 부부갈등이 아동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중재한다(Zimet & Jacob, 2001). 또한 인지맥락적 모델(Gryth & Fincham, 1990)과 정서적 안정감 가설(Davies & Cummings, 1994)은 주관적인 아동의 평가를 강조하고 잠재적으로 유해한 부부갈등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었을 때의 아동의 반응을 중시한다. 반면에, 간접적인 효과 이론은 부부갈등이 부모-자녀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이것은 갈등이 있는 부부관계의 '파급(spillover)효과'인 것

이다. 체계이론에서 파급효과는 부정적인 정서, 감정과 행동을 나타나게 하며, 부부관계가 부모-자녀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Erel & Burman, 1995). 파급효과는 부모자녀 공격성, 부적절한 훈육 그리고 부모-자녀 간 정서적인 교류에 파괴적인 특성을 가져온다(Zimet & Jacob, 2001).

<그림 1>은 부부갈등과 아동의 문제행동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요인들을 보여준다.



<그림 1> 부부갈등이 아동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하는 과정을 설명하는 모델(Zimet과 Jacob, 2001)

### ① 모델링(Modeling)

Bandura(1997)의 사회학습이론(Social Learning theory)에 의하면, 아동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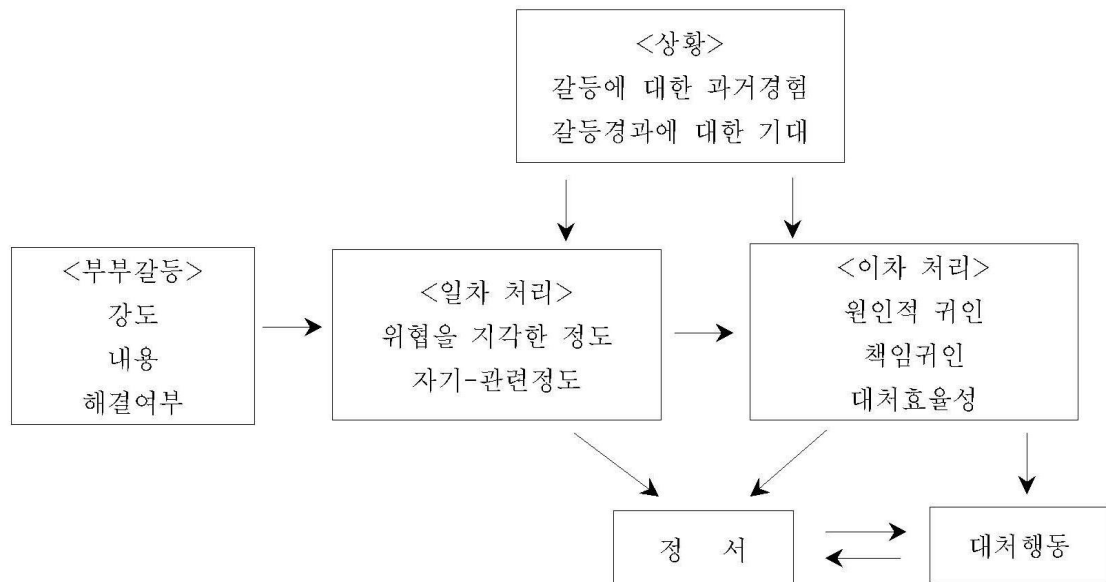
부모의 행동을 모방하고 배움으로 대인관계의 인지적인 모델을 발달시킨다. 부모-자녀관계가 자녀에게 미치는 강도와 지속성 때문에, 부모는 어린 아동의 사회적인 행동 발달에 중요한 역할모델이 된다. 결과적으로 모델링은 부모의 적대심과 분노를 관찰한 아동이 대리적인 학습을 통해 부모의 행동을 배우게 되고 또래관계, 형제자매관계에서 부모와 비슷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다(Stocker & Youngblade, 1999). 이렇게 모델링은 아동의 문제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더욱이 부부갈등이 존재하면 부모는 아이에게 허용적이 되어, 아동을 양육하는데 있어서 공격적인 행동을 용인한다(Gryth & Fincham, 1990). 또한 아동은 환경적인 단서를 지각하는 데 있어서 적대적인 개념을 갖도록 치우칠 수 있으며, 세상을 갈등이 많은 곳으로 지각할 수 있는 등 부적응적인 사회적 정보 처리를 발달시키게 된다(Zimet & Jacob, 2001). Rutter(1994)는 적대적인 귀인편향을 가진 아동들이 더욱 공격적인 행동을 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하였다. 더욱이 이러한 아동은 부부갈등에 대처하는 적응적인 대처 기제를 발달시키지 못한다(Cummings, Davies, & Simpson, 1994). 아동은 갈등을 관리하기 위해 공격성을 보이게 되고 문제 해결 혹은 갈등 해결에 대한 부적응적인 기술을 발전시키게 된다(Gryth & Fincham, 1990).

모델링 패러다임만으로 부부갈등에 노출된 아동의 문제행동을 설명하기에 충분치는 않지만, 모델링 과정은 아동이 부모의 행동을 인지적으로 해석하는 데 있어서 변화를 조절하기 때문에, 모델링은 아동의 인지적이고 사회적인 변인들을 조절하는 매개변인으로서 가장 잘 이해되고 있다(Zimet & Jacob, 2001). 모델링 가설이 강조하는 것은 부부관계의 특성에 따른 아동의 기능적인 행동과 역기능적인 행동 모두를 설명하며(Margolin, 1981), 아동의 독특한 성격 또한 설명한다는 것이다(Zimet & Jacob, 2001).

② 인지-맥락적 모형(Cognitive-Contextual framework)

몇몇 연구는 부부갈등에 노출된 아동과 이들의 문제행동 사이의 관계를 중재하는 아동이 지각하는 위협과 자기비난에 대한 가설을 지지해왔다(Grych, 1998; Gryth & Fincham, 1993; Gryth, Seid, & Fincham, 1992).

Gryth와 Fincham(1990)은 부부갈등에 대한 ‘인지-맥락적 모형(cognitive-contextual framework)을 제안하였다<그림 2>.



<그림 2> 인지-맥락 모형(Gryth & Fincham, 1990)

이 모델에서 Gryth 와 Fincham(1990)은 부부갈등의 영향은 갈등에 대한 아동의 이해와 평가에 의해 중재된다고 제안하면서 갈등이 아동에게 주는 의미를 강조하였다. 아동이 부부갈등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아동은 정서적인 요인과 인지적인 요인을 모두 사용한다. 정서적인 반응은 아동으로 하여금 갈등 상황이 위협적인가, 우호적인가를 구분하고 행동을 유발시키게 되며,

인지는 상황의 성격과 그에 반응할 수 있는 개인의 능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갈등상황을 인식하여 대처행동을 하게 한다.

아동은 부부갈등 상황에서 갈등을 목격하면서 인식하게 된다. 계속하여 파괴적인 부모의 불화에 따르는 분노를 경험하게 되면, 아동은 먼저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부정적이고, 위협적이고, 갈등에 자신이 관련된 것으로 상황을 평가하게 되며, 이에 대해 대처하기 위한 행동을 하게 된다(Gryth & Fincham, 1993). 이러한 과정이 일차적 처리 과정이라 불리는데, 이 과정을 통해 아동은 스트레스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초기 정서적 반응을 경험한다. 갈등사건의 특징과 상황적 요인이 이 첫 평가단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부부갈등의 특징은 갈등의 강도, 빈도, 내용, 해결여부를 들 수 있는데, 아동은 부모 갈등이 더 빈번하고, 갈등상황에서 부모간에 교류되는 분노표현과 신체적 공격을 포함한 갈등의 강도가 증가하는 경우에 보다 많은 심리적 고통을 경험한다(J. S. Cummings, Pellegrini, Notarious, & Cummings, 1989). 또한 갈등에 대한 해결반응이 제시되지 않을 경우(Rossmann & Rogenberg, 1992)에 보다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아동 자신과 관련된 내용일 때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다고 한다(Cummings & Davies, 1994; Gryth, Seid, & Fincham, 1992; Kerig, 1998; Osborne & Fincham, 1996). 상황적 요인으로 부부갈등에 대한 과거 경험을 들 수 있는데, 이러한 경험은 심리적 반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거나, 아동을 향한 부모의 공격을 통하여 아동의 적응과 간접적으로 연관될 수 있다. 높은 수준의 부부갈등 노출경험은 민감화와 분노상황에 따른 각성된 아동의 반응과 연관되고 있다(J. S. Cummings 등, 1989). 반복적인 가족 폭력에 대한 노출 경험은 더 높은 수준의 정서적 반응을 유발시킨다(J. S. Cummings 등, 1989; Gryth & Fincham, 1990). 부부불화와 적개심이 난무하는 가정환경에

서 자란 아동은 갈등 없는 가정의 자녀와 비교할 때, 성인 간 분노에 대해 증가된 반응수준(예를 들어, 몰두, 걱정, 지지추구 행동)을 보였다. 또한 빈번히 발생하는 일상적인 부부갈등 사건에 노출된 유아는 갈등을 겪지 못한 유아보다 부모간의 갈등에 추후 노출 되면 더 격렬히 반응한다(Cummings 등, 1994). 그리하여 부모의 분노에 빈번히 노출되면서 아동은 부적응적인 대처전략을 발달시켜 부적응 문제를 갖게 될 수 있다. 잦은 부부갈등은 위험환경으로도 작용하여, 이혼한 가정의 자녀들은 이혼이전부터 공격성, 충동성, 과잉활동, 불안과 정서적 문제를 더 많이 나타낸다(Block, Block, & Gjerde, 1986). 이러한 일차 처리과정은 아동 변인, 갈등의 특성, 그리고 맥락적인 요인으로 조절된다.

다음으로 위협을 지각하는 이차 처리과정에 있어서 아동은 “왜 갈등이 일어났을까(원인적 귀인)?, 갈등이 일어나는 데 누구에게 책임이 있을까(책임 귀인)?, 그리고 갈등에 성공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적절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가(효율성 기대)?”의 질문을 하게 된다(Gryth & Fincham, 1990). 이차 처리과정에서 아동변인(예, 나이)과 정서에 의해 조절되고, 부부갈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대처 반응(예, 개입행동)을 나타내게 된다. 갈등에 대한 아동의 평가는 일관적으로 아동의 적응문제와 연관된다. 그리고 평가의 특정 유형은 다른 문제의 발달에 기여하기도 한다(Gryth, 1998). 예를 들어, 자기 비난적인 귀인은 아동을 우울하게 하며 반면에 위협을 느끼고 대처효율성을 갖지 못하면 불안을 야기시킨다(Gryth, 1998). 인지맥락적인 영향은 외현화 문제행동보다는 내면화 문제행동에 더 큰 영향을 준다(Dadds, Atkinson, Turner, Blums, & Lendich, 19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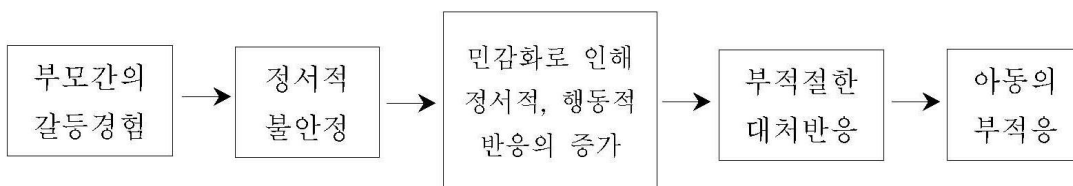
인지맥락적 모델이 강조하는 것은 아동의 갈등의 의미에 대한 평가, 지각된 위협의 정도, 원인에 대한 귀인과 자기비난, 대처효율성 혹은 갈등에 대

처할 수 있다는 아동의 신념이다(Gryth & Fincham, 1993).

이 모델의 강점은 갈등의 속성들을 통합시키고, 갈등에 대한 아동의 이해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갈등에 대한 아동의 이해가 다른 중요한 요인들인 아동의 나이, 성별, 맥락적, 인지적인 변인들에 의해 조절되며 중재적인 역할을 할 것을 인식했다는 것이다(Gryth, 1998).

### ③ 정서적 안정감(Emotional Security)

Bowlby(1969, 1973)의 애착이론에 영향을 받아, Davies 와 Cummings(1994)는 정서적 안정감 가설로 부부갈등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였다.



<그림 3> 정서적 안정감 가설에 대한 개념화(Davies & Cummings, 1994)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동이 부부갈등에 자주 노출되면 그 상황에 익숙해져 둔감해질 것이라고 예측한다(현명호와 최문선, 2002). 그러나 이 모델에서는 부모의 갈등을 경험한 아동이 정서적 불안정감을 경험하면서 더 민감해진다고 설명하고 있다.

정서적 안정감 가설에 따르면 부모의 갈등 상황에서 아동이 취하는 대처행동의 주목적은 정서적 안정감이며, 대처행동은 갈등상황에 대한 아동의 평가에 의해 결정된다. 갈등이 부정적이라고 평가되면, 아동은 부정적인 정서적 각성상태로 들어가게 되고 이러한 정서적 불안정감을 감소시키려고 아동

의 동기를 활성화시킨다. 이때 아동의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는 부부갈등에 대한 과거경험이다. 부모의 관계에 대해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느끼는 아동은 부모 간의 관계에 대한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에 대한 확신을 갖는다. 하지만, 부부갈등이 심한 가정에서 자란 아동은 부부갈등이 발생할 때 이와 같은 확신이 서지 않아 정서적 고통과 더불어 분노와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더 느끼게 되며 공격성과 행동적 개입이 증가한다 (Cummings 등, 1981, 1988; J. S. Cummings 등, 1989). 따라서 과거경험은 아동의 부정적인 정서와 각성 및 역기능적인 인지적 기대감을 증가시키며 정서적 안정감을 재형성하기 위해 부부관계에 행동적으로 개입하려는 아동의 동기를 더욱 활성화시킨다. 다시 말하면, 부부갈등에 대한 반복적인 노출은 아동의 정서적 불안감을 증가시킴으로써 감정과 행동을 조절하는 아동의 능력을 감소시켜서 두려움, 고통 및 분노와 같은 정서를 더 잘 느끼게 하며 이는 아동이 부부갈등에 둔감해지기보다 오히려 민감해짐을 암시한다 (Davies & Cummings, 1994; 우진영, 1998에서 재인용).

정서안정감 가설은 파괴적인 부부갈등에 대한 아동의 경험이 정서적 불안정감을 유발하고, 정서적 불안정감에서 적응문제가 발생한다는 가정을 세우고 있다. 즉, 아동의 정서적 불안정감(정서적 고통, 분노, 행동적 반응)이 증가하면 아동은 부적절한 대처 반응을 하게 되고 문제행동을 더 많이 보이게 된다.

이 모델은 부부갈등의 유해성이 아동에게 정서적 각성에 대한 자기조절능력, 부부갈등에 개입할 수 있는 동기, 내적인 표상과 부모와 그들 자신, 사회와 나아가 세상에 대한 작동모델(working model), 다른 이들과의 애착 (Ainsworth, Blehar, Waters, & Hall, 1978)을 형성하는 데 기여한다고 하였다. 정서적 안정감은 부모-자녀 관계의 특성을 평가하는 일차적인 기준으로

서 애정을 바탕으로 하는 돌보는 이에 대한 아동의 지각과 이들과의 관계에서 시작된다. 만성적이고, 유해한 부부갈등에 노출되는 것은 아동의 부정적인 정서적 각성을 증가시키고 돌보는 이와에 대한 불안정감을 증가시킨다. 아동들은 스스로를 달래는 법을 발달시키지 못하고, 지각된 갈등에 대해 과장된 반응을 하게 되고, 그들의 정서를 다루는 데 있어서 부적절한 방법을 사용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Fincham, Gryth, & Osborne, 1994). 불안정 애착을 형성한 아이들은 대인관계에서의 문제, 높은 수준의 부정적인 정서를 경험하고, 성인이 되어서 로맨틱한 관계를 잘 형성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Sperling & Berman, 1994). 결과적으로 정서적 안정감은 부부갈등의 영향을 조절하고, 줄이고, 끝내려는 대처반응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Davies & Cummings, 1994).

민감화 가설을 지지하는 연구들은 다음과 같다. Cummings와 그의 동료들(1989)의 연구에서 행동문제를 보이는 아동은 다른 아동보다 더 높은 수준의 정서적 각성상태를 보였다. 또한 적응문제에 위협을 가지고 있는 아동 표본을 연구한 결과 갈등에 노출된 아이들은 반응으로 자신의 감정, 행동 및 생리적 각성까지 조절하는 데에 큰 어려움을 보였다(Zahn-Waxler, Cummings, McKnew, & Radke-Yarrow, 1994). 학대 가정에서 자란 아동은 비학대 가정에서 자란 아동보다 부부 갈등에 대해 더 큰 정서적 고통을 호소한다(Fantuzzo 등, 1991). 이런 결과는 분노와 가족 폭력에 반복적으로 노출될수록 아동들이 더 큰 정서적 반응을 보인다는 민감화 가설을 지지한다(우진영, 1998에서 재인용).

위의 두 모델 즉, 인지맥락적 모델과 정서적 안정감 가설을 종합해 볼 때, 두 모델이 인지 와 감정 둘 중 한 가지를 강조하였지만 모두 아동의 주관적

인 평가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부부갈등의 의미가 아동자신과 가정에 대한 위협이 되는 데에 초점을 두고 있다. 두 이론에서 모두 아동이 유해한 갈등에 노출되면 아동이 민감해져서 정서적 각성을 증가시키게 되고 정서적 안정감은 감소하게 된다(Davies & Cummings, 1994). 부부갈등 상황에 대한 습관화에 의해 갈등에 적응하는 것 보다, 유해한 부부갈등에 대해 계속해서 노출되면 정서적인 반응이 증대되고, 더욱 더 회피하게 되거나 행동에 개입하게 되어 아동의 정서적 안정감은 위협받는다(Davies, Myers, Cummings, & Heindel, 1999).

이 모델들은 서로를 보완되어 부부갈등과 아동의 문제행동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아동의 정서, 행동, 인지에 복잡한 역할을 개념화하는 데에 넓은 틀을 제공한다(Davies, Myers, Cummings, & Heindel, 1999). 즉, 이 모델들은 부부갈등을 경험한 아동이 어떠한 심리적 과정을 통해 문제행동을 일으키는 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주므로 아동의 문제를 이해하고 중재하는 시기와 순서를 정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현명호와 최문선, 2002).

#### ④ 파급가설(Spillover Hypothesis)

##### : 부모-자녀의 관계 변화(Change in parent-child Relationships)

조화로운 결혼은 민감한 양육과 따뜻한 부모-자녀관계를 포함하고 있지만(Gable, Belsky, & Crnic, 1992), 부부사이의 적대감은 종종 비효과적인 양육, 부부간의 아동양육방식 부동의, 그리고 부부갈등과 관련된다(Stoneman, Brody, & Burke, 1989).

Engfer(1988)는 부부생활의 질과 부모-자녀관계의 질 사이의 정적인 상관

이 있다고 보는 가설을 파급(spillover) 가설이라고 했다. 파급이란, 한 상황에서 다른 상황으로 기분, 정서 및 행동이 직접 변하는 과정으로서, 다른 하위체계(예, 부부 양방)에서 발생된 감정들을 한 하위체계(부모-아동 양방)에서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Erel & Burman, 1995; 우진영, 1998에서 재인용).

파급가설에서는 부부갈등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두 가지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첫 번째로 부부갈등은 자녀양육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일관된 양육기술을 유지하는 것은 대부분의 가정에서 어려운 일이므로, 자녀양육은 부부 사이에서 자주 갈등의 원인이 되고(Block, Block, & Morrison, 1981), 부부사이에 일어나는 다른 잠재적인 갈등보다 더욱 더 수치심, 자기비난, 두려움을 가져온다(Grych & Fincham, 1993).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부부간에 갈등이 존재할 때, 이러한 갈등은 부부간에 사전에 존재하는 차이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 적대적인 배우자가 자녀 양육방식에 동의하지 않을 때, 아이의 행동에 대한 규칙, 기대감, 부모의 반응의 비밀관성이 증가한다(Fincham 등, 1994). 부부가 그들 자신의 갈등에 지나치게 몰입하면, 이들은 아동을 양육하는 데에 소홀하게 되고, 일관적이지 못하게 된다(Brody, Arias, Fincham, 1996). 또한 부부간의 적대심은 비효과적이고 권위적인 양육과 연관되며(Gable 등, 1992), 아이를 훈육하는 데 있어서 아이에게 불안과 죄책감을 갖게 한다(Fauber, Forehand, Thomas, & Wierson, 1990). 두 번째로 부부갈등은 부모-자녀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부부갈등은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에서 표현되는 감정에 악영향을 준다. 긍정적인 부모-자녀 관계는 아동에게 안정감을 주고, 아동을 스트레스로부터 보호하지만(Emery, 1982; Rutter, 1979), 부정적인 부모-자녀 관계는 아동에게 위협요인이 된다. 부부관계가 갈등을 내포한다면, 부부는 아동의 필요에 민감하지 못하고 정서적으로 허용적이지 못한 경향이 있다(Emde &

Eastbrook, 1985). 따라서 부부관계에서 부정적인 정서가 생기고 부모-자녀 관계에서 이러한 정서가 표현된다. 이것은 아동이 갈등에 직접적으로 노출되는 첫 번째 경로에 이어 아동의 정서적 안정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두 번째 경로가 된다.

그러므로, 부부갈등은 효과적인 훈육을 못하게 할 뿐 아니라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부부관계를 변화시킬 수 있다. 즉, 긍정적인 부부관계는 긍정적인 부모-자녀관계와 연합되고, 부정적인 부부관계는 부정적인 부모-자녀 관계와 연합된다. 파급가설에서는 부모-자녀 관계가 부부갈등의 수준에 종속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부부 갈등이 존재하면 부모-자녀 관계 역시 저하될 것이라고 본다(현명호와 이민식, 2002).

이러한 파급가설의 장점은 어떻게 해로운 부부갈등이 부부갈등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지 않는 아동에게 어떻게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설명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부모가 서로 갈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와의 관계를 잘 유지할 수 있을 때 부모는 그들의 갈등의 부정적인 영향으로부터 자녀를 보호할 수 있다.

#### **4) 아동의 문제행동에 대한 부부갈등의 영향을 조절하는 변인들**

아동은 자신의 환경을 통합하고 그에 반응하므로, 아동의 성격은 부부갈등과 아동문제의 관계를 조절할 수 있다. 어떤 아동들은 부부갈등에 노출되면 영향을 받지만, 다른 아동들은 나쁜 조건, 환경에도 불구하고 잘 적응한다. 아동의 조절 변인은 크게 4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Zimet & Jacob, 2001). 아동 변인으로 첫째, 인지적 요인-원인적 귀인, 자기비난 귀인, 효율성에 대한 기대이며 둘째, 아동의 갈등에 대한 행동 반응이다. 이것은 문제

중심(사건을 대체시킴)과 정서중심(자기정서를 조절함)행동으로 나눌 수 있다. 셋째, 맥락적인 요인들(인접한 것과 거리가 있는 것)이며 마지막으로, 아동의 기질, 발달단계, 나이 성별(아동과 부모나이)을 포함하는 개인적이고 인구통계학적인 변인들이다. 여기서 많은 조절변인들이 매개변인이 되기도 한다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 ① 인지적 요인들

부부갈등에 대한 아동의 사고와 신념은 그들의 반응을 조절하는 데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친다. Gryth와 Fincham(1990)의 연구에서 인지적 변인들은 원인적 귀인, 자기비난 귀인, 대처효율성에 대한 기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Zimet & Jacob, 2001).

첫째, 원인적인 귀인(Causal Attributions)은 아동이 부부갈등이 왜 발생했는지에 대한 의문을 갖는 것이다. 아동이 부부갈등이 발생한 원인에 대해 안정적이고, 지속적이고, 전체적이고 외부적으로 통제된다고 지각하면 아동은 부적응 문제를 갖게 된다(Gryth & Fincham, 1990). 그러한 귀인을 하는 아동은 더 낮은 자기존중감을 갖게 되고(Herzberger & Tennen, 1986), 부모와 의사소통을 잘 못하고(Brody 등, 1996), 부정적인 정서를 가질 경향이 있다(Zimet & Jacob, 2001)

둘째, 자기비난(Attribution of Self-Blame)이다.

어린 아동은 부모의 불화가 자기 탓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Fincham 등, 1994). 부모가 다투는 것에 책임을 느끼는 아동들은 부모간의 갈등에 더욱 더 개입하는 경향이 있고, 좋은 해결책을 가져야 한다는 의무감을 느끼고, 갈등이 해결되지 못했을 때 자신을 비난하게 된다(Fincham 등, 1994).

셋째, 효율성 기대(Efficacy Expectation)는 아동이 정서적, 행동적인 수준

에서 부부갈등에 대처할 수 있는 아동의 주관적인 지각을 말한다. 효율성이 높으면 아동은 그들 자신의 감정에 대처할 수 있고 갈등에 대한 그들의 반응을 조절하는 효과적인 행동을 사용하게 된다(Cummings 등, 1994). 반면에 낮은 효율성을 가진 아이들은 부정적인 감정과 무기력감을 경험하는 경향이 있다. 효율성 기대는 과거의 대처 행동, 정서적 각성 혹은 기질, 원인적귀인, 자기비난 귀인, 나이, 그리고 성별에 영향을 받는다.

## ② 행동적 반응

아동이 부부갈등에 노출되었을 때 적절한 행동적 반응을 할 수 있는 능력은 아동의 적응문제를 조절한다(Zimet & Jacob, 2001). 아동은 부부갈등에 대처행동을 함으로서 정서적으로 조절하거나(정서 중심), 스트레스 받는 갈등 사건을 바꾸거나(문제 중심), 혹은 둘 다로 반응하는 경향이 있다(Folkman & Lazarus, 1980; Gryth & Fincham, 1990).

정서 중심적 행동은 부정적인 감정을 조절하고, 긍정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적어도, 아버지는 오늘 엄마를 때리지 않는 것이다), 다른 가족에게 탓을 돌리는 것(동생의 문제 때문에 부모님이 다투신 것이다), 그리고 사건에 대한 해석을 바꾸는 것(부모님은 서로에게 화가 나서 소리를 지르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가 귀가 잘 안 들리시기 때문이다)이다. 또한 정서중심적 행동으로 아동은 갈등을 지각한 후 안정감 있거나 편안한 장소, 사람, 혹은 대상을 찾음으로서 감정을 조절하려고 한다. 심하고 폭력적인 갈등의 경우에 정서 중심적 해결은 해리나 가출과 같이 극단적일 수 있다(Zimet & Jacob, 2001).

반면에, 문제 중심적 행동은 아동이 부모를 중재하거나 분열시키려는 시도를 하여 갈등이 자신에게 미치는 영향을 줄이려는 것을 말한다. 문제 중심

적인 행동을 하는 아동은 부부 불화에서 오는 혼란에 대해 신체적 혹은 심리적 증상(Minuchin, 1974)을 보이거나, 부모의 불화에 대해 어떠한 방식으로든 접근(Eastbook, Cummings, & Emde, 1994)하려고 한다. 만약에 아동의 개입이 성공적이라면, 아동은 그 행동을 훗날의 부부갈등상황에서 다시 하게 되는데, 이때 이러한 아동의 행동은 부부갈등을 안보이게 위장하여 아동의 부적응을 나타낼 수도 있으며(Emery, 1982), 아동은 잠재적으로 위험한 갈등 상황에 연관되고, 아동의 개입 행동이 미래에 적합할 것이라는 신념을 증가시키게 된다(Zimet & Jacob, 2001).

### ③ 맥락적 요인들

아동이 부부 불화에 대한 과거 경험을 기억하는 것(원거리 요인)과 최근의 환경(근거리 요인)은 현재와 미래의 갈등의 과정과 결과를 예상하도록 해준다. 사실상, 부부의 신체적 공격성을 사전에 경험하는 것은 최근 갈등에 대한 아동의 지각에 있어서 강한 예측변인일 것이다(Gryth, 1998). Gryth와 Fincham(1990)은 아동의 기억(원거리 요인)은 과거 논쟁, 갈등해결, 자기비난 귀인의 특성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했다. 또한 특정 행동(부모가 문을 뺨 달음)은 갈등을 예상하는 데 연관될 수 있고, 현재 갈등의 시작점이 될 수도 있다(Gryth & Fincham, 1990). 갈등의 역사 또한 아동에게 정서적인 민감성을 증가시키고, 위협을 지각하게 하고, 자주 회피하거나 개입하는 행동을 증가시키게 한다(Davies, Myers, Cummings, & Heindel, 1999).

아동의 최근 환경(근거리 요인) 또한 부모 갈등과 연합되는 아동의 인지적, 정서적 변인에 영향을 준다. 우리의 기억은 우리의 경험이 정서적으로 유발되었다고 조직화하는 경향이 있다(Bower, 1981). 예를 들어, 아동이 학교에서 사람들에게 거절당하여 우울하거나 부정적인 감정을 경험하고 있으면,

행복하고 긍정적인 감정의 아이들 보다, 더더욱 과거의 부정적인 사건을 회상하고, 현재의 부정적인 경험에 수반되는 경향이 있으며(Nasby & Yande, 1982), 사람들의 행동에 대해 부정적인 판단을 한다(Nasby, 1996).

원거리, 근거리의 맥락적인 요인은 갈등의 과정과 결과에 대해 예상하게 하며, 아동이 부부갈등의 영향에 대해 지각하고, 판단하고, 생각할 수 있도록 하여(Zimet & Jacob, 2001) 부부갈등에 대한 지각을 조절할 수 있게 한다.

#### ④ 개인적, 인구통계학적 차이

아동은 인지, 행동, 맥락적 요인 뿐 아니라 아동의 기질, 나이, 성에 따라 부부갈등에 다르게 반응한다.

첫째, 기질은 부부갈등의 조절 변인으로서 Rutter(1979)의 아동기 스트레스-반응에 대한 연구에서 그 영향이 드러났다(Rutter, 1979). 정서적 반응과 자기조절의 기본이 되는 타고난 기질은 아동에 따라 개인적 차이를 나타낸다. 까다로운 아동들은 부부 문제 해결 과제에서 적극적으로 반응한다(Eastbook, Cummings, Emde, 1994). 기질이 부부갈등에 대한 아동의 반응에 영향을 준다는 간접적인 증거는 기질이 스트레스에 대한 높은 수준의 반응과 연관된다는 연구에서 나타나며(Hetherington & Clingempeel, 1989), 높은 정서적 반응을 하는 아동에게서 타인의 갈등에 대한 공격성이 증가하였다(Cummings 등, 1985). Gryth와 Fincham(1990)은 기질이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 행동반응, 부모-자녀관계를 변화시켜 부부갈등과 아동의 문제의 관계를 조절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두 번째로 발달단계, 나이가 부부갈등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을 조절한다. 초기 아동기의 아동은 의존성과 취약성이 높기 때문에, 후기 아동기의 아동은 갈등을 중재하려는 부담과 정서적인 민감성을 강하게 가지기 때문에 둘

중에 누가 부부갈등의 영향에 더 취약성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다양한 논쟁이 있었다(Emery, 1982).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나이의 아동들은 부부 불화 때문에 부적응 문제를 가진다는 증거가 있고, 특정 나이가 부부갈등에 영향을 많이 받는 촉발요인이 되지는 않는다고 한다(Hetherington, 1984). 예를 들어, Erel과 Burman(1995)은 연령집단에 따른 조절 효과가 의미 없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러나 이혼의 경우, 초기 아동기에 속하는 연령의 아동은 행동문제, 정서장애, 부적응 문제에 더욱 더 취약하다는 증거도 있다 (Clarke-Stewart 등, 2000).

모든 연령의 아이들이 부부갈등에 의해 부정적인 영향을 받지만, 부부갈등으로 인해 생기는 아동의 문제 양상이나 증상의 유형에 있어서는 연령에 따라 차이를 나타낸다(이민식, 1999). 예를 들어 유아와 초기 아동기에서는 공격성과 반항, 말 안 듣기, 성질부리기(temper tantrums)와 같은 행동문제를 보이고, 반면에 후기 아동기와 청소년기에는 불편감, 수동성 우울과 같은 정서문제를 경험하는 경향이 있다(Angold & Rutter, 1992; Rutter, 1986).

Hetherington(1984)은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가 아동의 발달 수준에 따라 대인관계 갈등을 인식하는 능력이나 그에 대처하는 능력 및 수단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즉, 어린 아동은 상대적으로 부모의 갈등을 인식하고 그 의미를 파악하는 능력도 부족하고 그에 대처하는 능력도 부족하다. 반면, 좀 더 나이가 든 아동은 부모의 갈등의 원인을 인식하고 결과를 예측하는 능력도 발달되어 있고, 그에 대한 대처 반응도 다양하다(이민식, 1999에서 재인용). 또한, 부모는 아기가 있으면 편하게 논쟁을 할지도 모른다고 하였다. 아동이 그러한 논쟁의 의미 혹은 내용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 믿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이가 10살이라면, 부모는 논쟁이 아이에게 좋지 않을 것이라고 느끼게 되며, 어린 아동이 더욱 더 취약하다고(상처받기

쉽다고) 느끼기 때문에, 자녀를 그들의 갈등에 직접적으로 노출되는 것으로 부터 보호한다(Gryth & Fincham, 1990). 부부갈등에 노출된 어린 아동은 부부갈등에 대해 더더욱 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하며(Gryth, 1998), 더 많은 두려움, 슬픔을 나타내고, 충동 행동을 하게 된다(Davies 등, 1999). 또한 어린 아동은 부모의 분노에 대해 그들 자신을 비난하고, 갈등을 자신에 대한 위협이라 지각하고, 부부갈등에 개입해야 할 의무감을 느끼고, 비행 청소년이 될 조짐을 보이게 된다(Cummings 등, 1991).

따라서 아동의 연령에 따라 부모의 갈등에 직면해서 나타내는 대처반응이나 부적응 문제의 유형에 차이를 보일 수 있으나 부부갈등이 아동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의 정도는 아동의 연령과 큰 관계가 없다고 할 수 있다(이민식, 1999).

마지막으로 성별의 조절효과에 대한 논의가 있다.

Rutter(1970)의 연구에서 부부갈등이 여아보다는 남아에게 더 많은 영향을 준다고 했다. 그러나 이는 남아 위주의 시대-문화적인 분위기로 인해 여아에 비해 남아의 문제가 더 잘 드러나며 남아가 더 많은 관심을 받았기 때문이었다(Whitehead, 1979; 이민식, 1999에서 재인용). 최근의 연구들을 보면, 부부갈등에 의해 아동의 문제행동이 영향을 받는 정도는 성별에 따라 차이를 보이지 않으며, 다만 아동의 성별에 따라 나타나는 문제 유형에 차이를 보인다는 결과와 차이가 없다는 결과가 공존하고 있다(Gryth & Fincham, 1990, 이민식, 1999에서 재인용).

남아와 여아 모두 높은 부부갈등의 영향에 취약하지만, 성별은 잠재적인 결과와 갈등과 아동문제의 관계가 발생하는 과정을 조절한다(Cummings 등, 1994). 사회화과정에서 남아와 여아는 평가와 대처행동이 다르므로(Gryth, 1998), 성별이 갈등과 아동의 문제행동 간의 관계를 조절할 것이라 본다

(Cummings 등, 1994). 남아가 부부갈등에 대해 통제되지 못하는/외현화 문제를 보이는 것이 분명하고, 반면에 여아는 지나치게 통제된/내면화 문제를 보이는 경향이 있다(Block 등, 1981). 예를 들어, 부부갈등과 연합되는 위협은 문제행동을 보일 경향이 있는 남아에게 더욱 더 결정적인 반면, 여아는 부부갈등에 대해 그들 자신을 비난하는 경향이 있어 내면화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이 드러났다(Block, 1983; Block 등, 1986; Cohn, 1991). 대처효율성 또한 여아보다는 남아의 문제에 중요한 예언변인이 된다(Cummings 등, 1994). 남아가 부부갈등에 더욱 더 취약하다는 가설은 여러 연구에서 자주 보고되었다(Hetherington, Cox, & Cox, 1979). Harold와 Conger(1997)는 부부간 적대감이 남아와 여아의 내면화 문제행동과 연관되는 반면, 외현화 문제행동은 단지 남아에서만 의미가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남아는 발달적 위협요소의 영역에 더욱 더 취약하며(Hetherington 등, 1982), 스트레스에 더 많이 반응하며, 여아보다 부부갈등을 더 많이 관찰한다(Cummings 등, 1994). 부모는 여아보다는 남아가 더욱 금방 회복할 것이라(resilient)고 느끼고, 결과적으로 갈등으로부터 남아를 보호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Cummings 등, 1994). 하지만 남아와 여아가 유사하게 부부갈등에 노출된다는 연구도 있다(Dadds, Atkinson, Turner, Blums, & Lendich, 1999). 이러한 결과에 반대하여 부부간의 공공연한 적대감의 표현은 여아에게 더 큰 스트레스를 주며 여아는 남아보다 갈등 해결에 더욱 더 민감하다고 하였다(Cummings 등, 1989).

부모의 성별에 관한 연구도 있는데, 아버지-자녀 관계가 어머니-자녀 관계보다 부부갈등의 영향에 더욱 더 취약한 경향이 있다(Kerig, Cowen, & Cowen, 1993; Owen & Cox, 1997). 또한 아버지가 어머니보다 파급효과의 영향에 더욱 취약하다고 설명하는 연구들이 있다. 아버지는 정서와 행동을

덜 구별하고 결과적으로 부부갈등에 의해 야기되는 부정적인 귀인을 다른 가족체계로 돌린다(Brody, Arias, & Fincham, 1996). 남자는 그들의 배우자와 아동과 관계를 맺는 데에 비슷한 스타일을 갖는 반면, 여자들은 부부관계와 부모-자녀 관계를 구분할 수 있다(Belsky, Youngblade, Rovine, & Volling, 1991). 반면에 부모의 성별이 부부갈등과 부모-자녀사이의 적대감(Stocker & Youngblade, 1999) 혹은 아동의 적응문제(Erel & Burman, 1995)를 조절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특정 환경 하에서는 부모의 성별이 부부갈등과 아동문제를 연관시킨다는 연구가 있다(Snyder, 1998, Holden & Ritchie, 1991; Kerig 등, 1993; Owen & Cox, 1997). 아동은 동성의 부모를 섬기고 동일시하므로 동성인 부모의 정서와 행동은 더욱 더 두드러져 보이고 긍정적으로 지각하게 되며(Crockenberg & Forgays, 1996), 그리하여 반대 성의 부모-자녀 관계에서는 과급가설에 의해 부모-자녀 관계가 좋지 않게 된다고 한다(Osborne & Fincham, 1996). Snyder(1998)는 사실상 성별이 남아, 여아, 아버지, 어머니 사이의 세대에 걸친 상호작용을 통해 모든 이론적인 기제를 조절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부부갈등과 아동 문제의 조절변인으로서 성별의 역할을 명확히 하는 것은 성별 변인이 복잡하며 성별의 영향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다(Snyder, 1998).

지금까지 부부갈등과 아동의 문제행동 간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정리해 보았다. 이와 같이 부부갈등이 아동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매개하거나 조절하는 변인들에 대한 연구들이 있어왔다.

최근의 연구결과들을 종합해볼 때, 부모간의 갈등의 빈도, 강도, 해결정도는 아동의 외현화 문제행동과 관계가 있고, 부모간의 갈등에서 느끼는 위협과 자기비난은 아동의 내면화 문제행동과 관계가 있다(Fincham, Gryth, &

Osborne, 1994)고 하여 갈등의 속성에 따라 나타나는 아동의 문제행동의 유형도 달라질 수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권영옥, 이정덕, 1999). 또한 아동이 부부갈등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갈등의 다양한 속성들이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들이 있었다. 특히 갈등의 해결은 부부갈등이 아동의 정서와 행동에 미치는 갈등의 부정적 영향을 감소시킨다고 한다. Cummings(1987)는 관찰연구를 통해 성인간의 분노에 대한 반응인 아동의 공격성과 심리적 고통이 갈등이 완전히 해결된 후에 기초 선까지 회복되었음을 보고하였다. 또한 미해결된 갈등(계속된 싸움, 침묵시위)은 부분적으로 해결된 갈등(항복, 주제변경)보다 아동에게서 더 많은 분노를 자아냈으며, 부분적으로 해결된 갈등은 해결된 갈등(사과, 화해)보다 더 많은 분노를 가져왔다(Cummings 등, 1991). 권영옥, 이순형(1999)의 연구 또한 부부갈등과 아동의 문제행동에서 갈등의 해결여부가 조절변인이 됨을 말해주고 있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 부부갈등의 해결을 부부갈등 지각과 아동의 문제행동 사이에서의 조절효과를 연구하였고 영문으로 'moderator'라고 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문으로 계속하여 중재효과라고 표기하여 용어의 혼동을 보이고 있다. 또한 조절효과에 대한 연구는 아동의 개인적인 변인인 통제신념과 자아탄력성이 부부갈등과 아동의 부적응 사이에 조절효과를 보인 김윤희, 황순택(2003)의 연구가 있다. 여기서 역시 moderator(조절효과)를 검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중재변인이라고 표기하고 있다.

매개효과에 관한 연구들은 다음과 같다. 부부갈등에 대한 아동의 지각된 위협과 자기비난은 부부갈등과 아동의 적응을 매개하여 아동의 내면화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친다(Gryth, Fincham, Jouriles, & Mcdonald, 2000). Grych(2003) 등은 계속하여 부부갈등이 아동의 내면화, 외현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지각된 위협과 자기비난의 매개효과 연구를 중단적으로 연구하였는

데, 이에서 지각된 위협은 내면화 문제행동에, 자기비난은 외현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부부갈등이 부모의 양육태도와 부모-자녀 관계에 부정적으로 작용하여 아동의 부적응문제에 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즉, 부부갈등이 부모-자녀 관계의 질을 변화시켜 아동의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부모-자녀 관계가 부부갈등과 아동의 문제를 매개함을 알 수 있다(Gryth & Fincham, 1990; Erel & Burman, 1995; Buehler & Gerard, 2002; Stocker, Richmond, Low, Alexander, & Elias, 2003; 우진영, 1998; 이민식, 1999). 양돈규와 성옥련(1998)은 아동의 환경적인 변인인 사회적 지지가 부부갈등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에서 완충효과(buffering effect)와 매개효과(mediator-effect)를 갖는다. 이 연구에서는 완충효과가 조절효과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이렇게 부부갈등이 자녀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용어가 통일되지 않았으며 연구 또한 미비한 실정이다.

##### **5) 부부갈등이 아동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조절하는 변인으로서의 대처효율성**

부부갈등에 노출된 아동은 왜 부부갈등이 일어났는지, 그 상황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잠재적인 대처 행동의 효율성에 대한 기대를 한다. 그리하여 아동은 부부갈등에 대처하기 위해 행동 반응을 하게 된다. 부부갈등에 대처하기 위한 아동의 노력은 아동의 적응에 영향을 주는 정서, 인지, 행동적인 반응들이 상호 연관되어 일어난다(Gryth & Fincham, 1990; Lazarus & Folkman, 1984). 이때 인지적 반응으로 대처효율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대처효율성(coping efficacy)은 상황에 따라 유발된 요구와 정서에 대처하기 위한 일반적인 신념으로 아동이 스트레스 상황에서 적응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대처효율성의 이론적인 관점 3가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Sandler 등, 2000).

첫째, Lazarus와 Folkman(1984)은 대처잠재력이라는 개념을 스트레스에 대한 2차적 평가의 한 부분으로 개념화시켰다. 대처잠재력은 개인이 스트레스 상황을 관리할 수 있다는 개인적인 평가로서 안녕감을 위협하는 결과로부터 개인을 보호해준다. 그들의 스트레스 적응모델에서 지각된 효율성은 스트레스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전략의 사용을 증가시킨다. 그리하여 대처가 효과적일 때 스트레스 수준이 낮아지며 비효과적일 때는 스트레스 수준이 높아진다. 이미 선행연구에서도 스트레스와 사회, 정서적 적응관계에 있어 대처행동이 중요한 조절변수로 알려지고 있다(정소영, 2000에서 재인용).

둘째, Bandura(1997)는 대처효율성에 대해 스트레스 상황에서의 정서적인 상태에 대한 자기 조절을 할 수 있는 자기효능감(self-efficacy)으로 대처효율성을 광범위한 구성개념으로 설명하였다. 따라서 대처효율성은 개인이 위협적인 사전에 대해 잠재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는 신념이며, 이것은 상황에 대한 개인의 사고와 감정을 조절하고 부정적인 결과를 줄이려고 행동을 취하는 것을 말한다. 스트레스 상황 하에서 대처효율성은 인지적, 동기적, 정서적, 결정적인 과정으로 대처하려는 노력을 형성하고 실행시킨다(Bandura, 1997).

셋째, 스트레스와 대처에 대한 동기이론에서 대처효율성을 설명하고 있다 (Skinner & Wellborn, 1994, 1997). 이 이론에서는 스트레스 상황에 대처한 결과가 대처효율성에 대한 신념에 영향을 주게 되고, 이러한 대처 효율성은 미래의 대처 노력에 영향을 주게 된다고 하였다. 개인이 스트레스를 경험하

며 위협을 느끼면 스트레스 사건을 도전적이라고 평가하거나 위협적이라고 느끼면서 대처함으로 그 상황을 되돌리거나, 변화시키려고 한다. 대처의 기능 중에 하나는 행동, 정서를 조절하여 유능감 혹은 효율성을 다시 되찾으려 한다는 것이다. 대처효율성은 사람들이 스트레스 사건을 어떻게 평가하는가에 영향을 받으며, 문제 해결, 계획, 그리고 위협적인 상황을 변화시킬 새로운 방법을 찾는 대처 노력을 촉구함으로써 대처에 영향을 준다. 그러므로 대처효율성은 대처에 영향을 주는 자가 체계(self-system) 과정인 것이다(Sandler 등, 2000).

부부갈등과 같은 스트레스 상황에 노출되면 아동은 갈등적인 가정환경에 대해 자신을 보호하고자 한다. 이때 아동의 대처는 아동의 적응 문제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부부갈등 혹은 가정 폭력에 대한 아동의 대처 방식은 부부갈등과 아동의 문제행동 간의 관계에 영향을 준다(Cummings, Davies, & Simpson, 1994).

이전의 경험적 연구들은 부부갈등에 대한 아동의 대처 반응을 설명하고 있다(O'Brien, Magrolin, & John, 1995). 먼저 갈등 환경에 노출된 아동은 아동 자신을 그 상황에 연관시키거나 거리를 두게 된다. 가족체계 이론에서 부부관계와 아동 사이의 분명한 경계는 아동이 건강하게 적응하게 함으로 아동이 갈등에 연루되게 하지 않는다(Minuchin, Rosman, & Baker, 1978). 반면에 부부갈등에 연루된 아이들은 통제하기 어려운 스트레스 상황에 노출되어 아동의 대처 노력은 통제 밖에 있게 된다. 즉, 부모의 관계에 정확한 경계를 가지고, 자신의 통제력을 가진 아동은 부부갈등 상황에 잘 대처할 수 있는 효율성을 갖게 되는 것이다.

부부갈등에 자주 노출된 아이들은 정서적 불안정감을 경험하며, 감정과 행동을 조절하는 능력이 감소하여 두려움, 고통 및 분노와 같은 정서를 더 잘

느낀다(Davies & Cummings, 1994). 위에서 부부갈등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는 기제 중 하나인 정서안정감 가설에서 아동은 부부갈등 상황에서 민감화로 인해 정서적, 행동적으로 많이 반응하므로 부적절한 대처반응을 하게 된다고 설명하였다. 반면에 대처효율성에 대한 신념은 스트레스에 대한 부정적인 정서적, 행동적 반응을 줄인다(Thompson, 1981). 높은 효율성에 대한 신념은 고통스러운 상황을 대처하려는 심리적인 어려움을 줄인다(Litt, 1988; Litt, Nye, & Shafer, 1993). 높은 대처효율성은 아동의 심리적 문제와 부적 상관성이 있다는 연구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Cowen, Work, Hightower, Wyman, Parker, & Lotyczewski, 1991; Thurber & Weisz, 1997).

부모의 이혼에 대한 아동의 대처와 적응 문제에 관한 연구에서 이혼에 따르는 스트레스가 증가했을 때 아동의 심리적인 문제 또한 증가하였다(Gryth & Fincham, 1992; Sandler, Wolchik, Braver, & Fogas, 1986, 1991). 또다른 연구에서 아동이 스트레스 상황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처 전략을 사용했을 때, 아동의 심리적인 문제가 적게 나타났다(Sandler, Tein, & West, 1994; Krantz, Clark, Pruyn, & Usher, 1985). 반면에, 회피하는 대처 전략을 사용하는 것은 높은 심리적 문제와 관련이 있었다(Armistead, McCombs, Forehand, Wierson, Long & Fauber, 1990; Sandler 등, 1994). Twohey(1998)는 이혼한 부부의 아동 표본에서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결과에 대해 아동이 지각된 조절감을 갖는 것은 적극적인 대처전략을 사용하게 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대처효율성이 아동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 됨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대처효율성은 부부갈등과 같은 스트레스 상황에 노출된 아동의

문제행동을 설명하는 핵심적인 변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부갈등이 아동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대처효율성의 조절효과를 알아보고자 한다. 이는 아동의 대처효율성이 아동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 환경을 통제 할 수 있는 기제로서 아동의 적응에 도움이 되리라 본다.

### 3. 연구문제 및 가설

부부갈등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부부갈등이 아동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에는 틀림없다. 하지만 갈등이 있는 환경의 모든 아동이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아니다. 부모의 갈등에도 불구하고 아동 개인의 강점은 그러한 상황에 적응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함으로 아동의 문제행동을 감소시킬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동이 부부갈등 상황에 노출되었을 때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제인 대처효율성이 아동의 문제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알아봄으로서 아동의 심리적인 어려움을 중재하는 데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가설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부부갈등이 아동의 내면화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대처효율성의 조절효과(moderating-effect)가 있을 것이다.

둘째, 부부갈등이 아동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대처효율성의 조절효과(moderating-effect)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대처효율성의 조절효과를 남, 여로 구분하여 성별에 차이가 있는지 검증해 보고자 한다.

## 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과 경기 소재 초등학교 5, 6학년 남녀 아동 391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대상자들의 일반적인 특성은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남자 210명(53.7%), 여자 181명(46.3%)이며, 학년별로는 5학년이 177명(45.3%), 6학년이 214명(54.7%)이다. 연구대상자들의 부모의 연령, 학력 등은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N=391) (괄호 안은 (%))

항목	남자	여자	합계
	210(53.7)	181(46.3)	391
학년			
5학년	89(42.4)	88(48.6)	177(45.3)
6학년	121(57.6)	93(51.4)	214(54.7)
나이(만)			
10세	12(5.7)	14(7.7)	26(6.7)
11세	97(46.2)	92(50.8)	189(48.3)
12세	100(47.6)	74(40.9)	174(44.5)
13세	1(0.5)	1(0.6)	2(0.5)
종교			
기독교	74(35.2)	79(43.6)	153(39.1)
천주교	25(11.9)	19(10.5)	44(11.3)
불교	48(22.9)	32(17.7)	80(20.5)
무교	61(29.0)	51(28.2)	112(28.6)
기타	2(1.0)	0(0)	2(0.5)
출생순위			
외동	15(7.2)	17(9.4)	32(8.2)
첫째	88(41.9)	87(48.1)	175(44.7)
둘째	83(39.5)	67(37.0)	150(38.4)
세째	16(7.6)	8(4.4)	24(6.1)
넷째 이상	8(3.8)	2(1.1)	10(2.6)
가족관계			
부모와 같이 삼	192(91.4)	164(90.6)	356(91.0)
이혼	10(4.7)	12(6.6)	22(5.6)
별거	2(1.0)	1(0.6)	3(0.8)
직장 때문에 따로삼	5(2.4)	3(1.6)	8(2.0)
한분이 돌아가심	1(0.5)	1(0.6)	2(0.5)
가정 분위기			
매우 화목함	70(33.3)	58(32.0)	128(32.7)
화목한편	92(43.8)	93(51.4)	185(47.3)
그저 그럼	44(21.0)	27(14.9)	71(18.2)
화목하지 않음	1(0.5)	3(1.7)	4(1.0)
전혀 화목하지 않음	3(1.4)	0(0)	3(0.8)
경제적 수준			
상	34(16.2)	25(13.8)	59(15.1)
중상	74(35.2)	69(38.1)	143(36.6)
중	94(44.8)	77(42.6)	171(43.7)
중하	5(2.4)	10(5.5)	15(3.8)
하	3(1.4)	0(0)	3(0.8)

<표 2> 연구대상자의 부모에 관한 특성

항목	아버지	어머니
부모나이		
30세 이하	0(0)	2(0.8)
31~35	9(2.3)	35(8.7)
36~40	116(29.7)	223(57.0)
41~45	197(50.4)	106(27.1)
46~50	54(13.8)	20(5.1)
51세 이상	15(3.8)	5(1.3)
부모학력		
초등학교 중퇴 또는 졸업	6(1.5)	6(1.5)
중학교 중퇴 또는 졸업	19(4.9)	31(7.9)
고등학교 중퇴 또는 졸업	182(46.5)	221(56.5)
대학교 중퇴	19(4.9)	17(4.3)
전문대 졸업	33(8.4)	21(5.4)
4년제 대학졸업	89(22.8)	69(17.6)
대학원졸업 이상	43(11.0)	26(6.6)
부모직업		
농림어업	5(1.3)	1(0.3)
자영업	90(23.0)	39(10.0)
기능기술직	67(17.1)	14(3.6)
단순노무직	10(2.6)	9(2.3)
서비스판매직	41(10.5)	64(16.4)
사무직	87(22.3)	44(11.3)
전문직, 경영 관리직	75(19.2)	32(8.2)
가정주부, 무직	6(1.5)	180(46.0)
기타	10(2.6)	8(2.0)

## 2. 측정도구

### 1) 자녀가 지각한 부부갈등 척도

아동이 지각한 부부갈등을 측정하기 위하여 Grych 등(1992)의 Children's Perception of Interparental Conflict Scales(CPIC)을 권영옥과 이정석(1997)이 국내에서 번안하여 타당화한 것을 사용하였다. Grych 등(1992)의 원래 척도는 9개 하위척도 총 5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하위척도 측정치에 대해 요인 분석한 결과 갈등의 특성, 자기비난(자책), 지각된 위협 등 3개의 요인구조를 나타냈다(Grych, Seids, & Fincham, 1992). 요인 1인 갈등의 특성은 부부갈등의 빈도, 강도, 해결의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요인 2의 지각된 위협은 부부갈등의 내용이 아동 자신과 관련된 것인지 혹은 관련이 없는 것인지를 나타내는 내용차원과 자기비난차원을 포함하고 있다. 요인 3은 지각된 위협으로 명명 되며, 부부갈등으로 인해 자녀가 느끼게 되는 위협차원, 갈등에 대한 효율성차원, 부모사이에서 갖게 되는 곤란한 느낌에 관한 삼각관계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권영옥과 이정석(1997)의 연구에서는 내적합치도 산출과정에서 3개의 문항이 제외되고 총 9개 하위척도 48문항이 채택되었다. 이 척도는 자녀가 지각한 부모간의 갈등에 대해 직접 평가하도록 하며 자녀의 부부갈등 노출경험 정도를 자녀의 관점에서 규명할 수 있다(박수잔, 1997). 각 문항은 3점 척도로서 그렇다, 약간 그렇다, 아니냐의 3점 척도로 평가한다. 전체 점수가 높을수록 부부간의 갈등이 심각함을 반영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민식(1999)이 사용한 '부부갈등의 특성'요인에 해당되는 19개 문항만을 사용하였다. 이는 갈등의 빈도, 강도, 해결 등 갈등의 특성요

인이 아동의 심리적 적응에 특히 유해한 측면들이라는 선행연구 결과들에 근거한 것이다(Cummings & Cummings, 1988; Gryth 등, 1992).

본 연구에서 산출된 전체 문항의 내적 합치도는 .85이다.

## 2) 대처효율성

아동의 대처효율성을 측정하기 위해 Gryth 등(1992)이 개발한 아동이 지각한 부부갈등 척도(CPIC)의 대처효율성 차원을 사용하였다. CPIC의 대처효율성 차원은 “나는 우리 부모님이 다투실 때 어떻게 해야할 지 모르겠다”, “나는 부모님이 다투실 때 그만두시도록 할 수가 없다.” 등의 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3점 척도로서 그렇다, 약간 그렇다, 아니다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낮을수록 대처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산출된 내적 합치도(Cronbach's alpha)는 .66이다.

## 3) 문제행동

아동, 청소년의 문제행동 관련하여 내면화, 외현화 문제행동을 측정하기 위하여 Achenbach(1991)가 개발한 자기보고식 문제행동 척도인 Youth Self Report(YSR)를 오경자, 홍강의 등(2001)이 국내에서 번안하여 표준화한 청소년 자기행동평가척도(Korean Youth Self Report: K-YSR)를 사용하였다. 이는 문제행동에 대해 11세에서 18세까지의 아동, 청소년이 스스로 자신을 평가하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내면화 문제행동척도와 외현화 문제행동척도를 사용한다. 본 연구에서 총 문제행동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alpha)는 .91이며, 내면화문제행동은 .88, 외현화 문제행동은 .83으로 나타났다.

### 3. 자료수집 절차

본 연구는 2004년 9월 20일부터 7일만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본 연구자가 직접 초등학교를 방문하여 각 반 담임선생님의 협조 하에 검사를 실시하였다. 검사시간은 제한을 두지 않았으며, 검사 소요시간은 20분~30분 정도 소요되었다.

### 4. 자료의 처리 및 분석

본 연구는 SPSS 10.0을 이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첫째, 부부갈등, 대처효율성, 문제행동 척도에 대한 신뢰도 산출을 위해 Cronbach alpha 값을 구하였고,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과 교차분석을 하였다.

둘째, 각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산출하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부부갈등이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대한 대처효율성의 조절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 Ⅲ. 연구결과

#### 1. 부부갈등과 대처효율성, 문제행동 간의 상관관계

부부갈등, 대처효율성, 문제행동을 측정하기 위한 내면화 문제행동, 외현화 문제행동, 총 문제행동 간의 상관관계는 <표 3>, <표 4>, <표 5>에 제시되어 있다. <표 3>에 의하면 모든 측정된 변인들 간의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먼저 부부갈등과 대처효율성간의 정적 상관은 아동이 부부갈등을 많이 지각할수록 대처효율성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민감화 가설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또한 부부갈등과 내면화 문제행동, 외현화 문제행동, 총 문제행동 간의 높은 정적상관이 나타났다. 즉, 아동이 부부갈등을 많이 지각할수록 문제행동이 많이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이는 남아, 여아 모두에서 관찰된다.

<표 3> 변인들의 평균, 표준편차 및 상관관계 : 전체표본

변인들	M	(SD)	전 체				
			1	2	3	4	5
1. 부부갈등	9.19	(5.889)					
2. 대처효율성	4.52	(2.640)	.373**				
3. 내면화문제	9.73	(7.751)	.455**	.423**			
4. 외현화문제	7.81	(5.562)	.404**	.328**	.577**		
5. 총문제행동	17.54	(11.863)	.487**	.430**	.924**	.846**	

\* p <.05      \*\* p <.01

<표 4> 변인들의 평균, 표준편차 및 상관관계 : 남아

변인들	M	(SD)	남 아				
			1	2	3	4	5
1. 부부갈등	9.09	(5.956)					
2. 대처효율성	4.69	(2.624)	.363**				
3. 내면화문제	9.24	(7.376)	.443**	.445**			
4. 외현화문제	7.81	(5.280)	.347**	.308**	.507**		
5. 총문제행동	17.05	(11.035)	.462**	.445**	.911**	.817**	

\* p <.05      \*\* p <.01

<표 5> 변인들의 평균, 표준편차 및 상관관계 : 여아

변인들	M	(SD)	여 아				
			1	2	3	4	5
1. 부부갈등	9.32	(5.823)					
2. 대처효율성	4.34	(2.653)	.389**				
3. 내면화문제	10.30	(8.127)	.469**	.414**			
4. 외현화문제	7.30	(5.887)	.467**	.350**	.645**		
5. 총문제행동	18.10	(12.764)	.515**	.425**	.935**	.873**	

\* p <.05      \*\* p <.01

## 2. 부부갈등과 아동의 문제행동에 대한 대처효율성의 조절효과

부부갈등과 아동의 적응에 대한 대처효율성의 조절효과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하였다. 먼저, 부부갈등, 대처효율성, 그리고 이 두

변인의 상호작용을 아동의 문제행동에 대한 예측변인으로 하여 위계적으로 회귀분석 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6> 내면화 문제행동에서 대처효율성의 조절효과

구분		$\beta$	R	R <sup>2</sup>	변화량( $\Delta R^2$ )
전체	부부갈등(A)	.455	.455	.207	.207***
	대처효율성(B)	.294	.531	.281	.074***
	A×B	.372	.544	.296	.015**
남아	부부갈등(A)	.443	.443	.196	.196***
	대처효율성(B)	.328	.538	.289	.093***
	A×B	.129	.539	.291	.002
여아	부부갈등(A)	.469	.469	.220	.220***
	대처효율성(B)	.272	.532	.283	.063***
	A×B	.627	.571	.326	.043**

\* p <.05    \*\* p <.01    \*\*\* p <.001

먼저, <표 6>에서는 부부갈등이 아동의 내면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대처효율성의 조절효과를 검증한 것이다.

<표 6>에 제시된 바와 같이 전체표본에서 내면화 문제행동에 대한 부부갈등과 대처효율성간의 상호작용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부갈등과 대처효율성이 내면화 문제행동에 대해 각각 유의한 주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남아들에게서는 주 효과는 유의하였으나, 부부갈등과 대처효율성간의 상호작용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즉, 부부갈등과 문제행동간의 관계에서 대처효율성의 조절효과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전체

표본에서의 상호작용 효과는 여아들의 결과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여아들에게서는 주 효과, 상호작용 효과 모두 유의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첫 번째 가설에서 부부갈등이 아동의 내면화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대처효율성이 조절효과를 보일 것이라는 가설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그러나 대처효율성의 조절효과는 여아에서만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외현화 문제행동에서 대처효율성의 조절효과

구분		B	R	R <sup>2</sup>	변화량(ΔR <sup>2</sup> )
전체	부부갈등(A)	.404	.404	.163	.163***
	대처효율성(B)	.206	.447	.199	.036***
	A×B	.276	.456	.208	.008*
남아	부부갈등(A)	.347	.347	.120	.120***
	대처효율성(B)	.210	.398	.158	.038**
	A×B	.078	.399	.159	.001
여아	부부갈등(A)	.467	.467	.218	.218***
	대처효율성(B)	.199	.501	.251	.033**
	A×B	.478	.526	.276	.025*

\* p <.05    \*\* p <.01    \*\*\* p <.001

<표 7>는 부부갈등이 아동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대처효율성의 조절효과를 분석한 것이다.

전체적으로 부부갈등과 대처효율성 모두 외현화 문제행동에 대해 주 효과를 갖는 것으로 보인다. 남아에게서 부부갈등과 대처효율성의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으며, 여아에게서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하였다. 따라서 전체표

본에서 상호작용 효과 역시 유의하여, 여아에서의 상호작용 효과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는 두 번째 가설을 지지하는 결과로 부부갈등이 아동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여아의 대처효율성이 조절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보인다.

<표 8> 총 문제행동에서 대처효율성의 조절효과

구분		$\beta$	R	R <sup>2</sup>	변화량( $\Delta R^2$ )
전체	부부갈등(A)	.487	.487	.237	.237***
	대처효율성(B)	.289	.555	.308	.072***
	A×B	.372	.568	.323	.015**
남아	부부갈등(A)	.462	.462	.213	.213***
	대처효율성(B)	.320	.549	.301	.088***
	A×B	.123	.551	.303	.002
여아	부부갈등(A)	.515	.515	.265	.265***
	대처효율성(B)	.265	.570	.325	.060***
	A×B	.621	.606	.367	.0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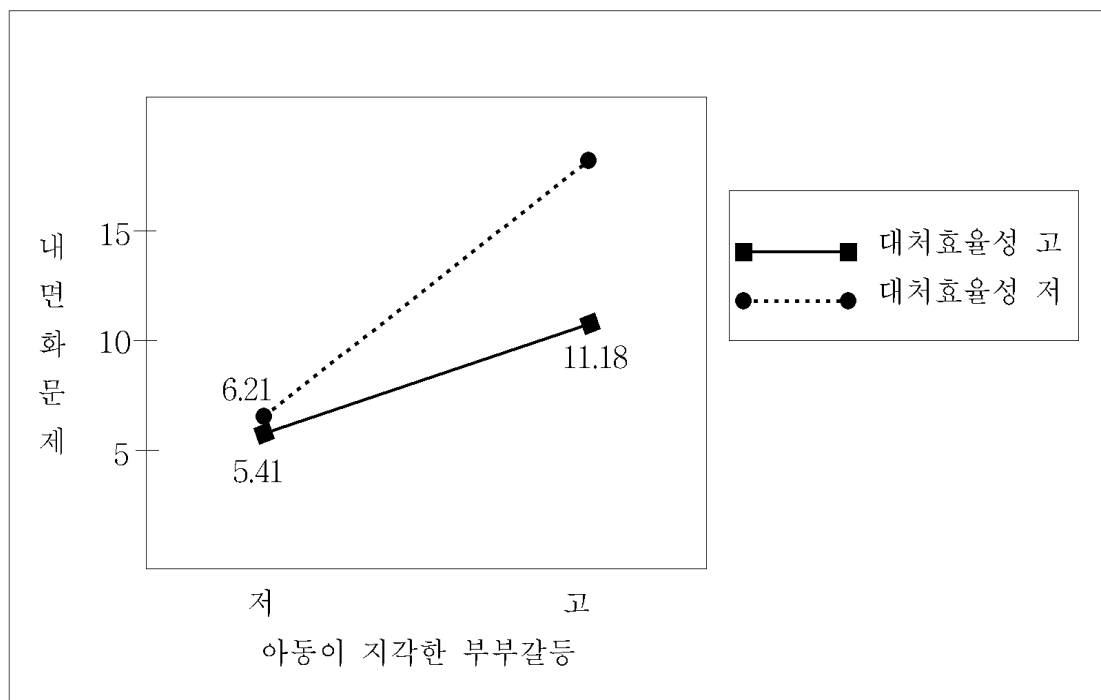
\* p <.05    \*\* p <.01    \*\*\* p <.001

<표 8>은 총 문제행동에서 부부갈등과 대처효율성의 주 효과와 상호작용 효과를 분석한 것이다. 제시된 것과 같이 남아는 부부갈등, 대처효율성의 주 효과에서 유의한 결과를 보였지만, 상호작용 효과에서는 유의하지 않았다. 여아에서는 주 효과, 상호작용효과 모두 유의하였다.

이상에서 부부갈등이 아동에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대처효율성에 대한 조절효과는 성별에 따라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아에서는

대처효율성의 조절효과가 있지만, 남아에게서 대처효율성의 조절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므로 부부갈등이 여아의 내면화, 외현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대처효율성에 의해 조절되지만, 남아의 문제행동에서는 대처효율성이 조절효과를 갖지 못함을 알 수 있다.

구체적인 상호작용의 형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아동이 지각한 부부갈등 및 대처효율성 수준에 있어서의 상위 1/3집단과 하위 1/3 집단의 문제행동에서의 평균값을 비교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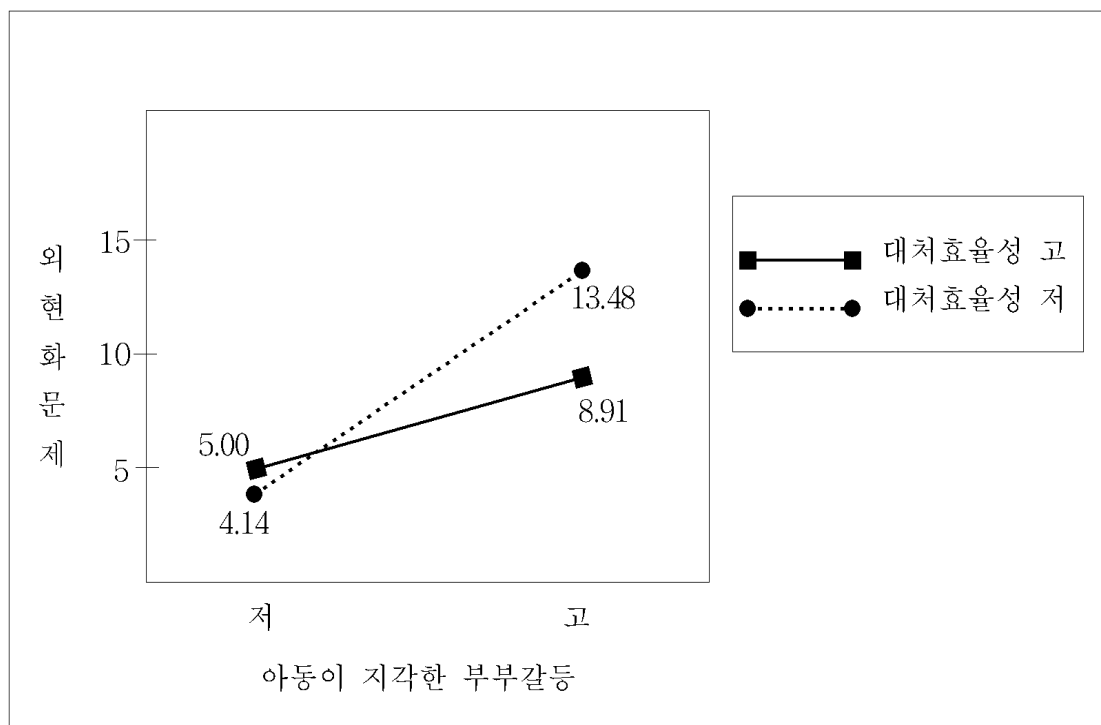


<그림 4> 여아의 내면화 문제행동에서의 부부갈등과 대처효율성 간의 상호작용

<그림 4>는 여아의 내면화 문제행동에서의 부부갈등과 대처효율성간의 상호작용 형태를 나타내는 그래프이다. 여아에서는 부부갈등과 대처효율성이

내면화 문제행동에 있어서 주 효과를 나타내고, 부부갈등과 대처효율성의 상호작용 효과 또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서 부부갈등을 적게 지각하고 대처효율성이 높을수록 내면화 문제행동을 적게 보이고, 부부갈등을 많이 지각하고 대처효율성이 높을수록 내면화 문제행동을 많이 보임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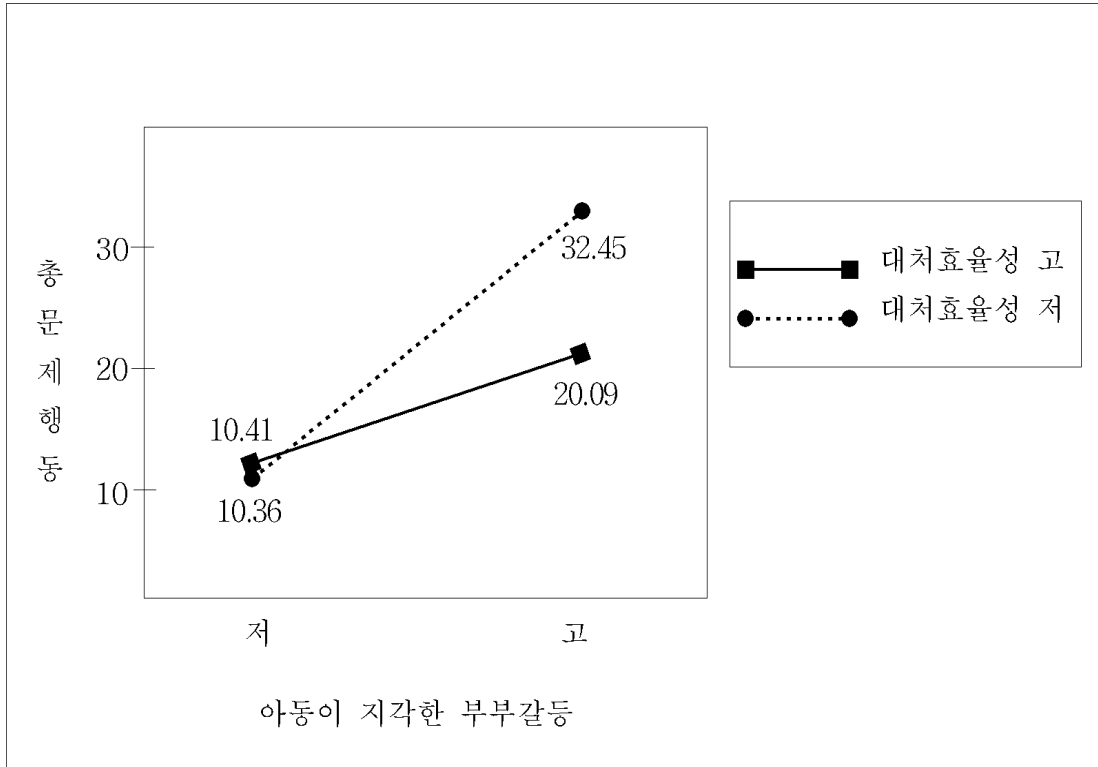
<그림 5>는 여아의 외현화 문제행동에서 부부갈등과 대처효율성 간의 상호작용을 나타내고 있는데, 역시 부부갈등을 적게 지각하고 대처효율성이 높으면 외현화 문제행동을 적게 나타내고, 부부갈등을 많이 지각하고 대처효율성이 낮을 경우 외현화 문제행동을 많이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5> 여아의 외현화 문제행동에서의 부부갈등과 대처효율성 간의 상호작용

<그림 6>은 여아의 총 문제행동의 부부갈등과 대처효율성의 상호작용 형태

를 제시하고 있다. 여아의 경우 모든 문제행동에서 부부갈등과 대처효율성의 주 효과와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보인다.



<그림 6> 여아의 총 문제행동에서의 부부갈등과 대처효율성 간의 상호작용

## IV. 논의 및 제언

### 1.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아동이 지각한 부부갈등이 아동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아동의 대처효율성이 조절효과(moderating-effect)를 갖는지를 알아보려고 하였다. 먼저 각 변인들의 상관관계를 검증하였고, 다음으로 부부갈등과 내면화, 외현화 문제행동을 대처효율성이 조절하는지를 알아보았으며, 모든 효과검증을 남, 여로 나누어 성별의 차이를 알아보려고 하였다.

가설 검증에 앞서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남아, 여아 모두 부부갈등, 대처효율성, 내면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 총 문제행동 간의 높은 정적 상관( $p < .001$ )을 나타냈다. 즉, 성별에 관계없이 부부갈등을 많이 지각할수록 대처효율성이 낮으며, 부부갈등을 많이 지각할수록 내면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을 많이 보이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처효율성이 낮을수록 내면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을 많이 보이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Gryth와 Fincham(1990)이 인지-맥락적 모형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아동이 지각한 부부갈등이 높을수록 아동의 문제행동이 많이 나타난다는 것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또한 부부갈등을 많이 지각할수록 대처효율성이 낮다는 결과는 정서안정감 가설(Davies & Cummings, 1994)을 지지하는 것으로 부부간의 갈등을 경험한 아동이 정서적 불안정감으로 갈등상황에서 민감하여져서 부적절한 대처반응을 하며 나아가 이러한 부적절한 대처반응이 아동의 문제행동을 가져온다는 결과를 지지하고 있다. 또한 아동이 환경을 조절하거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스트레스 환경에서 주의를 돌리거나 사회적인 지지를 추구하는 등의 대처전략을 사용하는 것이 아동의 적응에 주요한 긍정적인

예언변인이 되었다는 O'Brien 등(1995)의 연구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그러므로 부모가 갈등을 많이 보이면 상대적으로 아동은 효과적인 갈등 대처 방법을 배울 기회가 없기 때문에 자신의 대처기술 중에서 더 효과적이지 못한 것을 사용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렇게 부모가 부부갈등을 많이 보이면 아동의 정서발달과 대처방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

첫 번째 가설에서는 부부갈등이 아동의 내면화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대처효율성이 조절효과를 가질 것으로 가정하였다. 이를 위해 내면화 문제에 대한 부부갈등과 대처효율성의 주 효과와 상호작용 효과를 위계적 회귀분석으로 검증하였다. 이 결과 내면화 문제행동의 경우, 성별에 관계없이 부부갈등과 대처효율성의 주 효과가 유의하였다. 그러나 부부갈등과 대처효율성의 상호작용 효과는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여아의 경우 대처효율성의 조절효과가 나타났지만, 남아의 경우 대처효율성의 조절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두 번째 가설에서는 부부갈등이 아동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대처효율성이 조절효과를 보일 것으로 가정하였다. 외현화 문제행동 역시 부부갈등과 대처효율성의 주 효과가 남녀 모두에서 유의하였지만, 상호작용 효과는 여아에서만 유의하여 대처효율성이 조절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아에서는 내면화 문제행동과 같이 대처효율성의 조절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므로, 내면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에서 여아의 경우 부부갈등을 많이 지각하고 대처효율성도 낮을 경우 문제 행동이 많이 발생하는 반면, 남아는

부부갈등을 많이 지각하면 대처효율성에 관계없이 문제 행동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즉, 여아에게는 부부갈등의 영향을 줄이고 아동의 내면화 및 외현화 문제를 감소시키기 위해 대처효율성을 활용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즉, 부부갈등이 있는 가정에서 여아의 내면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을 예방하는 데 대처효율성을 활용하여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 본다.

이와 같은 논의를 종합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부부갈등은 아동의 문제행동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또한 아동이 부부갈등을 높게 지각하면 아동은 부적절한 대처반응을 하게 되며, 부적절한 대처를 하는 아동은 문제 행동을 일으킬 확률이 높다. 이것은 Davies와 Cummings(1994)의 정서적 안정감 가설을 지지하는 것으로, 아동의 문제 행동의 발생을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해서는 아동의 대처방식을 효율적으로 높여주어야 함을 말해준다. 부부불화가 심하고 갈등이 있는 가정환경에 노출된 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위하여 무엇보다 부부갈등을 줄이거나 없앨 뿐만 아니라 아동 스스로 대처효율성과 같은 보호요인을 가질 수 있도록 개입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대처효율성은 부부갈등이 아동의 내면화 및 외현화 문제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는 작용을 한다. 이는 여아의 경우 나타난 결과인데, 여아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부부갈등의 영향을 완화시키기 위해 대처효율성을 활용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즉, 부부갈등을 지각한 아동이 대처효율성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대처효율성의 조절효과는 성별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남녀차이는 대체로 여아가 또래의 남아보다는 언어능력이나(Michel, 1994) 사회적 능력(Ford,

1982; 도현심, 1994, 고정환, 2002)이 성숙하므로 여아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대처기술을 사용하는 반면에 남아는 여아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숙하므로 대처기술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신현숙과 구본용, 2001) 결과라고 추정된다. 그러나 이러한 남녀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 관련 연구가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남녀차이에 대한 구체적인 더 많은 후속 연구가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부부갈등이 아동의 문제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는 변인으로서 대처효율성을 도입함으로써 아동이 부부갈등과 같은 스트레스 상황에 노출되었을 때, 아동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대처전략을 사용함으로써 부모의 갈등 상황에 스스로 적응하여 문제행동을 줄일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성인에게 뿐만 아니라 아동에게도 부모의 갈등과 같은 환경적인 스트레스가 아동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고, 그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갈등 대처 기술이나 대처방식에 따라서 그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결과를 보여주는 자료이다. 따라서 아동의 대처효율성을 증진시켜 주는 일은 아동이 부부불화, 갈등과 같은 가족 내 스트레스 상황에 보다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 아동의 문제행동을 줄일 수 있는 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따라서 아동의 대처효율성을 계발하고 증진시키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된다.

## 2. 연구의 제한점 및 제언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부부갈등을 아동이 지각한 것으로 하였는데, 이는 아동의 주관적인 보고에 의존한 것으로 부부갈등에 대한 부부의 보고와 차이를 보일 수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부부갈등에 대한 지각을 다방면으로 확대하여 아동의 보고뿐 아니라 부모의 보고까지 고려하여 이 둘의 차이점 및 관계를 밝히고, 부부갈등에 대한 다양한 지각을 종합하여 부부갈등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겠다.

둘째, 대처효율성의 개념과 이를 측정하는 척도가 명확하지 못하다. 본 연구에서 대처효율성은 아동이 지각한 부부갈등 척도(CPIC)의 하위변인으로서 6문항으로 측정되었다. 신뢰도는 .66 인데 이는 낮은 수준이다. 아동의 대처효율성에 대한 척도를 개발하여 아동의 대처행동이 아동의 문제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아동의 내면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을 알아보기 위해 청소년자기행동평가척도(K-YSR)를 사용하였다. 하은혜 등(1998)은 문제행동에 대한 청소년과 부모평가 간의 관계를 비교하기 위해 한국판 아동청소년 행동평가척도(K-CBCL)과 K-YSR 간의 하위요인 구조 비교를 하였다. 이에 두 척도의 공통되는 문항을 요인 분석한 결과 요인구조 자체는 비교적 유사하지만 그 중요도에 있어 서로 다른 결과를 나타냈다. 부모가 자녀를 평가한 K-CBCL의 경우 비행, 공격성과 같이 외적으로 드러나는 외현화 문제가 일차적으로 중요하게 부각된 반면, K-YSR에서는 우울, 불안, 위축 등의 내면화 문제가 가장 변별력 있게 지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동의 보고와 부모의 보

고에서의 차이를 말해주는 것으로 후속연구에서 이러한 차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강명희(2000)는 문제행동에 대한 부모, 아동, 교사 평가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는데, 이에서 부모-자녀 간의 일치도가 낮을 뿐 아니라, 부모-교사와의 일치도도 낮음을 볼 수 있었다. 이렇게 낮은 일치도는 문제행동을 판단하고 규정하는 데에 있어 부모와 자녀, 그리고 교사가 서로 다른 요인에 영향을 받는 데서 오는 것이다. 그러므로 Achenbach가 개발한 아동, 청소년의 행동을 교사가 평가하는 척도인 K-TRF(Teacher Report Form)또한 고려하여, 아동의 문제행동을 다양하게 측정할 필요가 있다.

넷째, 본 연구에서 나타난 대처효율성의 조절효과에서 성별의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내면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에서 여아는 대처효율성이 조절효과를 나타낸 반면 남아는 대처효율성의 효과가 드러나지 않았다. 부부갈등과 아동의 문제행동에 대한 성별의 차이에 대한 연구에서 부부갈등에 의해 아동의 심리적 적응에 영향을 받는 정도는 아동의 성별에 따른 차이는 없으며 다만 아동의 성별에 따라 나타나는 문제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공존하고 있다(Gryth & Fincham, 1990; 조윤녕, 2002 재인용). 부부불화가 아동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성별차이를 연구한 Purcell과 Koslow(1994)는 일반가정에서는 성별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반면, 임상집단에서 부부불화에 노출된 남아가 여아보다 더 심각한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부부갈등과 아동의 문제의 관계에 대한 연구들은 아동의 문제유형과 성별간의 관계에 대해 여전히 불일치하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Zimet & Jacob, 2001). 또한 부부갈등이 아동의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성차가 나타나는 것에 대해 설명해 줄 수 있는 이론적 근거가 불충분한 실정이다(Harold 등, 1997).

또한 부부갈등이 아동의 적응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성별에 따른

대처효율성의 효과 연구가 부족하다. Cummings 등(1994)의 연구에서는 여아보다 남아에게 대처효율성이 아동의 문제를 예측하는 데 더 중요한 변인으로 조사되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대처효율성은 여아에게서만 조절효과를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연구는 다소 불일치하는 결과이며, 따라서 대처효율성의 역할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과 분명한 이론적 근거가 연구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본 연구에서는 부부갈등이 아동의 문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요인들을 통제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부부갈등이 아동의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잠재적인 요인들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부모의 정신건강 상태는 직, 간접적으로 아동의 정서, 행동 문제와 연관되어 있다. 그 중 어머니 우울은 부모-자녀 상호작용의 질과 양육방식을 변화시키고, 부부간의 불화를 증가시켜 아동에게 영향을 미친다(남소현, 김영희, 2000; Davies & Cummings, 1994; Downey & Coyne, 1990; 현명호, 최문선, 2002에서 재인용). 또한 가정의 환경적 요인 혹은 가정 내 스트레스 요인도 아동의 문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를 들어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이 심하고 낮은 사회계층에 속하는 가정과 같은 환경적 인 어려움은 직접적으로 가족 구성원들 간의 갈등을 증폭시키고, 아동의 행동문제에도 영향을 준다(Elder & Caspi. 1988).

따라서 부부갈등이 아동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고 매개하는 변인들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연구들은 아동이 주어진 환경에 보다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개입하는 데에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 알아본 대처효율성 뿐만 아니라 아동 개인의 성격적 특성, 기질 뿐만 아니라 아동이 사회적으로 맺는 관계들, 즉 또래관계나 다른 어른들과의 관계, 교사와의 관계 등에서 아동이 얻을 수 있는 환

경적인 강점 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여섯째, 본 연구는 10에서 12세 사이의 후기 아동기에 속하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였다. 그러므로 본 연구 결과를 더 넓은 연령층으로 확대하여 해석하기에 무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더 넓은 층을 대상으로 부부갈등이 아동,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일곱째, 부부갈등에 노출된 아동이 장기적으로 문제 행동을 보이는지 지속적으로 탐색하는 종단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 아동의 문제 행동은 한 시점의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반응의 정도와는 또 다른 문제일 수 있다. 아동의 발달연령에 따른 심리적 적응수준에 초점을 맞추어 종단연구를 통해 부부갈등이 보다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아동의 문제행동과 나아가 아동의 심리적 적응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연구할 필요가 있겠다. 또한 부부갈등이 아동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영향을 미치는 다른 변인들 또한 아동의 발달주기에 따라 변화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연구 또한 필요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강명희 (2000). 문제행동에 대한 부모, 아동, 교사 평가간의 관계.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고정환 (2002). 초등학생 놀이 활동 유형이 사회성에 미치는 영향,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권영옥, 이순형 (1999). 부부갈등과 아동의 행동문제: 부부갈등해결의 중재효과, **아동학회지**, 20(4), 61-74
- 권영옥, 이정덕 (1997). 자녀가 지각한 부부갈등 척도(CPIC)의 타당화 연구, **아동학회지**, 18(1), 65-80.
- 권영옥, 이정덕 (1999). 부부갈등과 아동의 행동문제, **아동학회지**, 20(1), 115-133.
- 김윤희, 황순택 (2003). 부모갈등이 아동의 부적응에 미치는 영향-통제신념과 자아탄력성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2(2), 343-362.
- 남소현, 김영희 (2000). 어머니의 심리적 환경요인과 아동의 외면적, 내면적 부적응행동. **대한가정학회지**, 38(10), 119-213.
- 도현심 (1994). 유치원 아동 및 6학년 아동의 사회적 능력: 부모의 관심, 보호성, 아동의 성 및 출생 범주와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박수잔 (1997). 부모간의 갈등이 아동의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영림, 최혜림 (2002).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부·모 애착, 부부갈등 지각 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4(3), 741-755.
- 박진아 (2001). 학령기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과 행동문제간의 관계, 연

- 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현숙, 구분용 (2001). 청소년의 스트레스 대처방식과 적응과의 관계, **청소년 상담연구**, 9, 189-225.
- 양돈규, 성옥련 (1998). 부모갈등과 사회적 지지가 청소년의 우울과 비행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 98연차대회 학술발표논문집, 375-393.
- 양희정 (1999). 아동이 지각한 부모간 갈등과 아동의 정서행동 문제간의 관계-사회적 지지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오경자, 이해련, 홍강의, 하은혜 (2001). **K-YSR 청소년 자기행동평가척도**, 서울 : 중앙적성출판사.
- 우진영 (1998). 아동의 심리적 적응과 부부갈등, 부모-자녀 관계 사이의 관련성,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민식(1999). 부부갈등이 아동의 내면화 및 외현화 문제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민식, 오경자(2000). 부부갈등이 아동의 내면화 및 외현화 문제에 미치는 영향-아동의 지각된 부부갈등과 양육태도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4), 727-745.
- 이현정 (1997). 스트레스에 대한 아동의 대처행동과 사회적 적응, 학업성취 및 행동문제. 인하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소영 (2000). 아동이 지각한 부부갈등과 부모관련 스트레스 및 스트레스 대처행동간의 관계.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영숙, 정승희 (1996). 일부지역 초등학생의 스트레스 대처행위 측정. **한국학교 보건학회지**, 9(2). 185-195.
- 조윤녕(2002). 아동이 지각한 부모갈등과 부모양육태도에 관한 연구 -내면화, 외현화 증상을 중심으로,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하은혜, 이수정, 오경자, 홍강의 (1998). 문제행동에 대한 청소년 자신과 부모 평가간의 관계 : K-CBCL과 YSR의 하위요인 구조 비교, **소아·청소년정신의학**, 9(1), 3-12.
- 현명호, 최문선(2002). 부부갈등이 아동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사회과학연구** 제15집.
- Achenbach, T. M. (1991). Manual for the Youth Self-Report and 1991 Profile. Burlington, VT; University of Vermont Department of Psychiatry.
- Achenbach, T. M., & Edelbrock, C. (1983). *Manual of the Child Behavior Checklist and Revised Child Behavior Profile* Burlington, University of Vermont.
- Ainsworth, M., Blehar, M., Waters, E., & Hall, S. (1978). *Patterns of attachment: A psychological study of the strange situation*. Hillsdale, NJ: Erlbaum.
- Anderson, S. A., Russell, C. S., & Schumm, W. R., (1983). Received marital quality and family life-cycle category: A further analysi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5, 127-139.
- Angold, A., & Rutter, M. (1992). Effects of age and pubertal status on depression in a large clinical sample.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4, 5-28.
- Armistead, L., McCombs, A., Forehand, R., Wierson, M., Long, N., & Fauber, R. (1990). Coping with divorce: A study of young adolescents.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19, 79-84.
- Bandura, A. (1977). *Social learning theory*. Englewood, NJ: Prentice-Hall.

- Bandura, A. (1997). *Self-efficacy: The exercise of control*. New York: W. H. Freeman.
- Baron, R. M., & Kenny, D. A.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6), 1173-1182.
- Belsky, J., Youngblade, L., Rovine, M., & Volling, B. (1991). Patterns of marital change and parent-child interactio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3, 487-498.
- Block, J. H. (1983). Differential premises arising from differential socialization of the sexes: Some conjectures. *Child Development*, 54, 1335-1354.
- Block, J., Block, J., & Gjerde, P. (1986). The personality of children prior to divorce: A prospective study. *Child Development*, 57, 827-840.
- Block, J. H., Block, J., & Morrison, A. (1981). Parental agreement-disagreement on child-rearing orientations and gender-related personality correlates in children. *Child Development*, 52, 965-974.
- Bower, G. (1981). Mood and memory. *American Psychologist*, 36, 129-148.
- Bowlby, J. (1969). *Attachment and loss*: Vol. 1. Attachment. New York: Basic Books.
- Bowlby, J. (1973). *Attachment and loss*: Vol. 2. Separation. New York: Basic Books.
- Brody, G., Arias, I., & Fincham, F. (1996). Linking marital and child attributions to family processes and parent-child relationships. *Journal*

- of Family Psychology*, 10, 408-421.
- Buchanan, C., Muccoby, E., & Dornbusch, S. (1991). Caught between parent: Adolescents experience in divorced homes. *Child Development*, 62, 1008-1029.
- Buehler, C., & Gerald, J. M. (2002). Marital conflict, ineffective parenting, and children's and adolescent's maladjustment.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4, 78-92.
- Carlson, B. E. (1990). Adolescent observers of marital violence. *Journal of Family Violence*, 5, 285-299.
- Clarke-Stewart, K., Vandell, D., McCartney, K., Owen, M., & Booth, C. (2000). Effects of parent separation and divorce on very young children.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14, 304-326.
- Cohn, L. D. (1991). Sex differences in the course of personality development: a meta-analysis. *Psychological Bulletin*, 109, 252-266.
- Conger, R. D., Conger, K. J., Elder, G. H., Jr., Lorenz, F. O., Simons, R. L., & Whitbeck, L. B. (1992). A family process model of economic hardship and adjustment of early adolescent boys. *Child Development*, 63, 526-541.
- Conger, R. D., Conger, K. J., Elder, G. H., Jr., Lorenz, F. O., Simons, R. L., & Whitbeck, L. B. (1993). A family process model of economic hardship and adjustment of early adolescent boys. *Developmental Psychology*, 29, 206-219.
- Cowen, E. L., Work, W. C., Hightower, A. D., Wyman, P. A., Parker, G. R., & Lotyczewski, B. S. (1991). Toward the development of a

- measure of perceived self-efficacy in children.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20, 169-178.
- Crockenberg, S., & Forgays, D. (1996). The role of emotion in children's understanding and emotional reactions to marital conflict. *Merrill-Palmer Quarterly*, 42, 22-48.
- Cummings, E. M. (1987). Coping with background anger in early childhood. *Child Development*, 58, 976-984.
- Cummings, E. M., Ballard, M., El-Sheikh, M., & Lake, M. (1991). Resolution and children's responses to interadult anger. *Developmental Psychology*, 27, 462-470.
- Cummings, E. M., Cummings, J. S. (1988). A process-oriented approach to children's coping with adults' angry behavior. *Developmental Review*, 8, 296-321.
- Cummings, E. M., & Davies, P. T., (1994). Marital conflict and child adjustment; An emotional security hypothesis. *Psychological Bulletin*, 116, 387-411.
- Cummings, E. M., Davies, P., & Simpson, K. (1994). Marital conflict, gender, and children's appraisals and coping efficacy as mediators of child adjustment.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8, 141-149.
- Cummings, E. M., Iannotti, R., & Zahn-Waxler, C. (1985). Influence of conflict between adults on the emotions and aggression of young children. *Developmental Psychology*, 21, 495-507.
- Cummings, J. S., Pellegrini, D. S., Notarius, C. I., & Cummings, E. M. (1989). Children's responses to angry adult behavior as a function of

- marital distress and history of interparent hostility. *Child Development*, 60, 1035-1043.
- Cummings, E. M., Vogel, D., Cummings, J. S., & El-Sheikh, M. (1989). Children's response to different forms of expression of anger between adults, *Child Development*, 60, 1392-1404.
- Cummings, E. M., Zahn-Waxler, C., & Radke-Yarrow, M. (1981). Young children's responses to expressions of anger and affection by others in the family. *Child Development*, 52, 1274-1281.
- Cummings, E. M., Zahn-Waxler, C., & Radke-Yarrow, M. (1984). Developmental changes in children's reaction to anger in home,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25, 63-74.
- Dadds, M., Atkinson, E., Turner, C., Blums, G., & Lendich, B. (1999). Family conflict and child adjustment: Evidence for a cognitive-contextual model of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13, 194-208.
- Davies, P., & Cummings, E. (1994). Marital conflict and child adjustment: An emotional security hypothesis. *Psychological Bulletin*, 116, 387-411.
- Davies P., Myers, R., Cummings, E., & Heindel, S. (1999). Adult conflict history and children's subsequent responses to conflict: An experimental test.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13, 610-628.
- Downey, G., & Coy, J. C. (1990). Children of depressed parents: An integrative review. *Psychological Bulletin*, 108, 50-76.
- Eastbook, A. A., Cummings, E. M., & Emde, R. (1994). Young children's responses to constructive marital disputes. *Journal of Family*

- Psychology*, 8, 160-169.
- Elder, G. H., & Caspi, A., (1988). Economic Stress in lives; Developmental perspective, *Journal of Social Issue*, 44, 25-46.
- Emde, R., & Easterbrooks, M. (1985). Assessing emotional availability in early development. In W. Frankenburg, R. Emde, & J. Sullivan(Eds.), *Early identification of children at risk: An international perspective*(pp. 79-101). New York: Plenum.
- Emery, R. (1982). Interparental conflict and the children of discord and divorce. *Psychological Bulletin*, 92, 310-330.
- Emery, R. E., & O'Leary, K. D. (1982). Children's perceptions of marital discord and behavior problems of boys and girl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10, 11-24.
- Emery, R. E., & O'Leary, K. D. (1984). Marital discord and child behavior problems in a nonclinic sample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12, 411-420.
- Engfer, A. (1988) *The interrelatedness of marriage and the mother-child relationship*. In R. A. Hinde & J. Stephenson-Hinde (Eds.), *Relationships within families*. Oxford, England: Clarendon Press.
- Erel, O., & Burman, B. (1995). Interrelatedness of marital relations and parent-child relations: A meta-analytic review. *Psychological Bulletin*, 118. 108-132.
- Fantuzzo, J. W., Depaola, L. M., Lambert, M., Martino, T., Anderson, G., & Sutton, S. (1991). Effects of interparental violence on the psychological adjustment and competencies of young children. *Journal*

-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9, 258-265.
- Fauber, R., Forehand, R., Thomas, A., & Wierson, M. (1990). A mediational model of the impact of marital conflict on adolescent adjustment in intact and divorced families: The role of disrupted parenting. *Child Development*, 61, 1112-1123.
- Farber, R. L., & Long, N. (1991). Children in context : The role of the family in child psychotherap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9, 813-820.
- Fincham, F. (1994). Understanding the association between marital conflict and child adjustment: Overview,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8, 123-127.
- Fincham, F., Gryth, J., & Osborne, L., (1994). Does marital conflict cause child maladjustment? Directions and challenges for longitudinal research.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8, 128-140.
- Fincham, F., Osborne, L. (1993). Marital conflict and children: Retrospect and prospect. *Clinical Psychology Review*, 12, 75-88.
- Folkman, S., & Lazarus, R. (1980). An analysis of coping in a middle-aged community sample.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21, 219-239.
- Ford, M. E. (1982). Social cognition and social competence in adolescence, *Developmental Psychology*, 18, 323-340.
- Gable, S., Belsky, J., & Crnic, K. (1992). Marriage, parenting, and child development : Progress and prospects.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5, 276-294.
- Goodman, S., Barfoot, B., Fryre, A., & Belli, A. (1999). Dimensions of

- marital conflict and children's social problem-solving skills,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13, 33-45.
- Gryth, J. (1998). Children's appraisals of interparental conflict: Situational and contextual influences.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12, 437-453.
- Gryth, J., Fincham, F. (1990). Marital conflict and children's adjustment: A Cognitive-Contextual framework. *Psychological Bulletin*, 108, 267-290.
- Grych, J., Fincham, F. (1993). Children's appraisals of marital conflict: Initial investigations of the cognitive-contextual framework. *Child Development*, 64, 215-230.
- Gryth, J., Seids, M., & Fincham, F. (1992). Assessing marital conflict from the child's perspective: The Children's Perception on Interparental Conflict Scale. *Child Development*, 63, 558-572.
- Gryth, J. H. & Fincham, F. D. (1990). Marital conflict and children's adjustment : A cognitive-contextual framework. *Psychological Bulletin*, 108, 267-290.
- Gryth, J. H. & Fincham, F. D. (1993). Children's appraisals of marital conflict: Initial investigations of the cognitive-contextual framework. *Child Development*, 64, 215-230.
- Gryth, J. H. & Fincham, F. D., Jouriles, E. N., & McDonald, R. (2000). Interparental Conflict and Child Adjustment: Testing the Mediational Role of Appraisals in the Cognitive-Contextual Framework. *Child Development*, 71(6), 1648-1661.
- Gryth, J. H., Harold, G. t., & Claire, J. M. (2003). A Prospective

- Investigation of Appraisals as Mediators of the Link Between Interparental Conflict and Child Adjustment. *Child Development*, 74(4). 1176-1193.
- Gryth, J. H., Seid M. & Fincham, F. D. (1992). Assessing Marital conflict from the Child's Perspective: The Children's Perception of Interparental Conflict Scale, *Child Development*, 63, 558-572
- Harold, G. T., & Conger, R. D. (1997). Marital conflict and adolescent distress: The role of adolescent awareness. *Child Development*, 68, 558-572.
- Harold, G., & Conger, R. (1997). Marital conflict and adolescent distress: The role of adolescent awareness. *Child Development*, 68, 333-350.
- Harold, G. T., Fincham. R. D., Osborne. L. N., & Conger. R. D. (1997). Mom and dad are as it again: Adolescent perceptions of marital conflict and adolescent psychological distress. *Developmental Psychology*, 33, 333-350.
- Herzberger, S., & Tennen, H. (1986). Coping with abuse: Childrne's perspectives on their abusive treatment. In N. Ashmore & D. Brodzinsky(Eds.), *Thinking about the family: Views of parents and children*(pp. 277-300). Hillsdale, NJ: Erlbaum.
- Hetherington, E., & Clingempeel, W. (1989). Coping with family transition: Winners, losers, and survivors. *Child Development*, 60, 1-14.
- Hetherington, E. M., & Cox, M., & Cox, R. (1979). Play and social interaction in children following divorce. *Journal of Social Issues*, 4, 26-49.

- Hetherington, E. M., Cox, M., & Cox, R. (1982). Effects of divorce on parents and children. In M. Lamb (Ed.), *Nontraditional families: Parenting and child development* (pp. 233-288). Hillsdale, NJ: Erlbaum.
- Holden, G., & Ritchie, K. (1991). Linking extreme marital discord, child rearing, and child behavior problems: Evidence from battered women. *Child Development, 62*, 311-327.
- Howes, P., & Markman, H. (1989). Marital quality and child functioning: A longitudinal investigation. *Child Development, 60*, 1044-1051.
- Jenkins, J., & Smith, M. (1990). Factors protecting children living in disharmonious homes: Maternal reports.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29*, 60-69.
- Johnston, J. R., Gonzalez, R., & Campbell, L. (1987). Ongoing postdivorce conflict and child disturbance.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15*, 497-509.
- Jouriles, E., Baring, J., & O'Leary, K. (1987). Predicting child behavior problems in maritally violent familie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15*, 165-173.
- Jouriles, E. N., Murphy, C. M., & O'Leary, K. D. (1989). Interspousal aggression, marital discord, and child problem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7*, 453-455.
- Kalmuss, D. (1984). The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marital aggressio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6*, 11-19.
- Kerig, P., Cowan, P., & Cowan, C. (1993). Marital quality and gender differences in parent-child interac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29*,

931-939.

- Kerig, P. K. (1998) Moderators and mediators of effects of Interparental conflict on children's adjustment.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26(3). 199-212.
- Lazarus, R. S., & Folkman, S. (1984). *Stress, appraisal and coping*. New York: Springer.
- Litt, M. D. (1988). Cognitive mediators of stressful experience: Self-efficacy and perceived control.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12, 241-260.
- Litt, M. D., Nye, C., & Shafer, D. (1993). Coping with oral surgery by self-efficacy enhancement and perceptions of control. *Journal of Dental Research*, 72, 1237-1243.
- Long, N., Forehand, R., Fauber, R., & Brody, G. (1987). Self-perceived and independently observed competence of young adolescents as a function of parental marital conflict and recent divorce.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15, 15-27.
- Long, N., Slater, E., Forehand, R., & Fauber, R. (1988). Continued high or reduced interparental conflict following divorce : Relation to young adolescent adjustment.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6, 467-469.
- Margolin, G. (1981). The reciprocal relationship between marital and child problems. In J. Vincent (Ed.), *Advances in Family intervention, assessment, and theory*(Vol. 2, pp. 131-182). Greenwich, CT: JAI Press.
- Mchale, S. M., Freitag, M. K., Crouter, A. C., & Bartko, W. T. (1991). Connections between dimensions of marital quality and school-age

- children's adjustment. *Journal of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12, 1-17.
- Michel, G. F. (1994). Sex difference in parental influences on children's story-telling. *Journal of Genetic Psychology*, 155, 47-59.
- Minuchin, S. (1974). *Families and family therapy*.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Minuchin, S., Rosman, B. L., & Baker, L. (1978). *Psychosomatic families: anorexia nervosa in context*.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Moos, R. H., & Billing, A. G. (1982). Conceptualizing and measuring coping resources and process. In L. Coldberger & S. Breznitz (Eds.), *Handbook of Stress: Theoretical and clinical aspects*, 212-230. New York: Free Press.
- Nasby, W. (1996). Moderators of mood-congruent encoding and judgement: Evidence that elated mood and depressed mood implicate distinct processes. *Cognition and Emotion*, 10, 361-377.
- Nasby, W., & Yande, R. (1982). Selective encoding and retrieval of affectively valent information: Two cognitive consequences of children's mood stat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3, 1244-1253.
- Nolen-Hoeksema, S., Girgus, J. S., & Seligman, M. E. (1992). Predictors and consequences of childhood depressive symptoms: A 5-year longitudinal study.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1, 405-422.
- O'Brien, M., Bahadur, M. A., Gee, C., Balto, K., & Erber, S. (1997). Child Exposure to Marital Conflict and Child Coping Responses as Predictors

- of Child Adjustment,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21, 39-59.
- O'Brien, M., Margolin, G., & John, R. S. (1995). Relation among marital conflict, child coping, and child adjustment,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4, 346-361.
- Osborne, L. N., & Fincham, F. D. (1996). Marital conflict, Parent-child relations and child adjustment : Does gender matter? *Merrill Palmer Quarterly*, 42, 48-75.
- Owen, M., & Cox, M. (1997). Marital conflict and the development of infant-parent attachment relations.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11, 152-164.
- Purcell, D. W., & Kaslow, N. J. (1994). Marital discord in intact families: sex differences in child adjustment, *The American Journal of Family Therapy*, 22(4). 356-370.
- Richman, N., Streavenson, J., & Graham, P. J. (1982). Pre-school to School. *A behavioral Study*. London : Academy Press.
- Rossmann, B. B. R., & Rosenberg, M. S. (1992). Family stress and functioning in child : The moderating effects of children's Beliefs about their control over parental conflict.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33, 699-715.
- Roy, M. (1977). *Battered women: A psychological study of domestic violence*. New York: Van Nostrand.
- Rutter, M. (1970). Sex differences in response to family stress. In E. J. Anthony & C. Koupernik (Eds.), *The child in his family*. New York: Wiley.

- Rutter, M. (1971). Parent-child separation. Psychological effects on the children.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12, 233-260.
- Rutter, M. (1979). Maternal deprivation, 1972-1978: New finding, new concepts, new approaches. *Child Development*, 50, 283-305.
- Rutter, M. (1994). Family discord and conduct disorder: Cause, consequence, or correlate?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8, 170-186.
- Rutter, M. (1979). Protective factors in children's responses to stress and disadvantage. In M. Kent & J. Rolf (Eds.), *Primary prevention in psychopathology: Social competence in children*(pp. 95-113). Hanover, NH: University Press of New England.
- Rutter, M. (1986). The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of depression: Issues and perspectives. In M. Rutter, C. E. Izard, & R. B. Read (Eds.), *Depression in young people: Developmental and clinical perspectives*. New York: Guilford Press.
- Rutter, M., Yule, B., Quinton, D., Rowlands, Yule, W., & Berger, M. (1975). Attainment and Adjustment in two geographical area.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126, 520-533.
- Sandler, I. N., Tein, J. Y., & West, S. G. (1994). Coping, stress, and the psychological symptoms of children of divorce: A cross-sectional and longitudinal study. *Child Development*, 65, 1744-1763.
- Sandler, I. N., Tein, J., Mehta, P., Wolchik, S., & Ayers, T., (2000). Coping Efficacy and Psychological Problems of Children of Divorce. *Child Development*, 71(4), 1099-1118.
- Sandler, I. N., Wolchik, S., Braver, S. L., & Fogas, B. (1986). Significant

- events of children and divorce: Toward the assessment of a risky situation. In S. M. Auerbach & A. Stolberg (Eds.), *Crisis intervention with children and families* (pp. 65-87). New York: Hemisphere.
- Sandler, I. N., Wolchik, S., Braver, S. L., & Fogas, B. (1991). Stability and quality of life events and psychological symptomatology in children of divorce. Preventive Intervention Research Centers [Special issue].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19, 501-520.
- Scheier, M. F., & Carver, C. S. (1987). Dispositional optimism and physical well-being: The influence of generalized outcome expectancies on health. *Journal of Personality*, 55, 169-210.
- Shred, R., McDonnell, P. M., Church, G., & Rowan, J. (1991). Infants cognition and emotional responses to adult's angry behavior. Poster Presented at the meeting of the Society for Research Child Development. Seattle. WA.
- Skinner, E. A., Wellborn, J. G. (1994). Coping during childhood and adolescence: A motivational perspective. In D. L. Featherman, R. M. Lerner, & M. Perlmutter (Eds), *Life span development and behavior*(Vol. 12, pp. 91-133). Hillsdale, NJ: Erlbaum.
- Skinner, E. A., & Wellborn, J. G. (1997). Children's coping in the academic domain. In S. A. Wolchik & I. N. Sandler (Eds.), *Handbook of children's coping with common life stressors: Linking theory, research and interventions* (pp. 387-422). New York: Plenum.
- Slater, E. J., & Haber, J. D. (1984). Adolescent adjustment following divorce as a functional of family conflict. *Journal of Consulting and*

- Clinical Psychology*, 52, 920-921.
- Smith, J. P., & Williams, J. G., (1992). From abusive household to dating violence. *Journal of Family violence*, 7, 153-165.
- Snyder, J. (1998). Marital conflict and child adjustment" What about gender? *Developmental Review*, 18, 390-420.
- Sperling, M., & Berman, W. (Eds.). (1994). *Attachment in adults: Clinical and developmental perspectives*. New York: Guilford Press.
- Stocker, C. & Richmond, M., Low, S., Alexander, E., & Elias, N. (2003). Marital conflict and children's adjustment: parental hostility and children's interpretations as mediators. *Social Development*, 12(2), 149-161.
- Stocker, C., & Youngblade, L. (1999). Marital conflict and parental hostility: Links with children's sibling and peer relationships.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13, 598-609.
- Stoneman, Z., Brody, G., & Burke, M. (1989). Marital quality, depression, and inconsistent parenting: Relationship with observed mother-child conflict.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y*, 59, 105-117.
- Straus, M. A. (1979). Measuring intrafamily conflict and violence : The Conflict Tactics(CT) Scal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1, 75-88.
- Straus, M. A., Gelles, R. J., & Steinmetz, S. (1980). *Behind closed doors: Violence in the American family*. Garden City, NY: Anchor.
- Thomson, S. C. (1981). Will it hurt less if I can control it? A complex answer to a simple question. *Psychological Bulletin*, 90, 889-101.

- Turner, C. A., & Weisz, J. R. (1997). "You can try or you can just give up" : The impact of perceived control and coping style on childhood homesickness. *Developmental Psychology*, 33, 508-517.
- Vincent, J. P., Harris, F. E., & Plog, A. (1991). Divorce and children's adjustment: The role of interparental conflict, maternal affect and parenting. In J. Vincent(Ed.), *Advances in family intervention, assessment and theory*(vol. 5, 47-68). London: Jessica Kingsley.
- Whitehead, L. (1979). Sex differences in children's responses to family stress: A re-evaluation.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20, 247-254.
- Wolfe, D., Jaffe, P., Wilson, S., & Zak. L. (1985). Children of battered women: The relation of child behavior to family violence and maternal stres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3. 657-665.
- Zahn-Waxler, C., Cummings, E. M., McKnew, D. H., & Radke-Yarrow, M. (1984). Altruism, aggression and social interactions in young children with a manic-depressive parent. *Child Development*, 55, 112-122.
- Zautra, A. J., Reich, J. W., & Newsom, J. T. (1991). Coping success and its relationship to psychological distress for older adult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1. 801-810.
- Zimet, D. M. & Jacob T. (2001). Influences of Marital Conflict on Child Adjustment: Review of Theory and Research. *Clinical Child and Family Psychology Review*, 4(4). 319-335.

## ABSTRACT

### **The Influence of Parents' Marital Conflicts on Children's Behavioral Problems**

**: Focusing on moderating the effect of coping efficacy.**

Soo-jin Lim

The Department of Psychology

Graduate School of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is study attempted to examine the influence of parents' marital conflicts on children's behavioral problems with a particular emphasis on the moderating effect of coping efficacy.

The subjects for this study were 391 students (210 boys and 181 girls) in the fifth and sixth grades. The Children's Perception of Inter-parental Conflict (CPIC) Scale designed by Gryth & Fincham (1992), and Coping Efficacy Scale, Youth Self Report (YSR) designed by Achenbach (1987) were administered to them. Frequency analysis, cross tab, correlation, and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were conducted for

the data using SPSS statistical methods.

The result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re were positive correlations among the internalizing and externalizing problems, marital conflict and coping efficacy. That is, the more the children perceived the parents' marital conflicts, the greater they exhibited internalizing and externalizing problems. The fewer coping strategies they had, the more they experienced internalizing and externalizing problems. The children who experienced more of their parents' marital conflicts also utilized less efficient coping skills.

Second, the coping efficacy functioned as a buffering variable for children who experienced their parents' marital conflicts. It reduced the internalizing and externalizing problems. However, the moderating effects of internalizing and externalizing problems were demonstrated only by the girls, not boys.

## 부 록

부록 1: 자녀가 지각한 부부갈등 척도(CPIC)

부록 2: 대처효율성

부록 3: K-YSR

# 설문지

안녕하세요?

귀중한 시간을 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설문은 여러분이 부모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과 느낌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생활하는 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시험이 아니므로 각 문항에는 정답이 없으며, 응답내용은 절대 비밀이 보장되며, 익명으로 통계 처리되어 오직 연구에만 사용될 것입니다.

한 문항도 빠짐없이 응답해 주시고, 정확한 연구결과를 위해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로 성심성의껏 솔직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심리학과

인지행동연구실

지도교수 채 규 만

연구원 임 수 진

◆ 다음은 여러분의 일반 사항에 대한 내용입니다. 해당되는 곳에 O표 해 주세요

1. 성별: 남자( ) 여자( )    2. 나이: 만( )세
3. 학년: 5학년( ) 6학년( )
4. 종교: 기독교( ) 천주교( ) 불교( ) 무교( ) 기타(적어주세요: )
5. 출생순위: ( )남 ( )녀 중 ( )째
6.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을 모두 표시해 주십시오
  - ① 아버지( ) ② 어머니( ) ③ 형제, 자매( ) ④ 할아버지( ) ⑤ 할머니( )
  - ⑥ 기타( ): 직접 적어 주십시오
- ※ 아버지( ) 혹은 어머니( )난에 표시를 안 한 경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직장 때문에 따로 사심( ) ② 별거( ) ③ 이혼( ) ④ 돌아가심( )

※ 같이 살고 있지 않다면 그 부모를 얼마나 자주 만나고 있습니까?

- ① 주 1회( ) ② 2주 1회( ) ③ 3주 1회( ) ④ 월 1회( )  
 ⑤ 거의 만나지 않음( ) ⑥ 기타( )

7. 부모님의 연령은? 아버지( )세, 어머니( )세

8. 부모님의 학력은?

학 력	아버지	어머니
1. 무학		
2. 초등학교 중퇴 또는 졸업		
3. 중학교 중퇴 또는 졸업		
4. 고등학교 중퇴 또는 졸업		
5. 대학교 중퇴		
6. 전문대학교 졸업		
7. 4년제 대학교 졸업		
8. 대학원 졸업 이상		

9. 부모님의 직업은? (해당 안 될 경우 기타에 적어주세요)

직 업	아버지	어머니
1. 농림 어업자(농업, 어업, 축산, 원예)		
2. 자영업(개인 택시기사, 종업원 9인 이하 가게경영주 등)		
3. 기능, 기술직 종사자(운전기사, 미용사, 엔지니어 등)		
4. 단순 노무직 종사자(경비원, 청소부, 일용직 노동자 등)		
5. 서비스, 판매직 종사자(점원, 보험설계사, 외판원, 도매, 소매업, 음식점, 숙박업 등)		
6. 사무직 종사자(은행원, 일반공무원, 회사원 등)		
7. 전문직, 경영 관리직 종사자 (과장급 이상의 공무원이나 회사원, 의사, 약사, 변호사, 판검사, 교수, 교사 등)		
8. 가정주부, 무직		
9. 기타( )		

10. 내가 생각하는 우리 가정 분위기는? ( )

- ① 매우 화목하다 ② 화목한 편이다. ③ 그저 그렇다  
 ④ 화목하지 않다. ⑤ 전혀 화목하지 않다

11. 내가 생각하는 우리 가정의 경제수준은? ( )

- ① 상 ② 중상 ③ 중 ④ 중하 ⑤ 하

## 부록 1: 자녀가 지각한 부부갈등 척도(CPIC)

♣ 어느 가정이든 부모님의 사이가 항상 좋은 것은 아니에요.

부모님이 다투실 때 여러분이 어떻게 느끼는지 알고 싶어요.

아래의 문항들을 잘 읽으시고 현재 혹은 지난 1년 동안 그런 일이 얼마나 있었는지 그 정도를 해당되는 숫자에 동그라미로 표시해 주세요.

0=아니다, 1=조금 그렇다, 2=그렇다

아니다    조금 그렇다  
          그렇다

1. 나는 우리 부모님이 다투거나 의견이 맞지 않는 것을 본 적이 없다.	0	1	2
2. 우리 부모님은 다투실 때 굉장히 화를 많이 내신다.	0	1	2
3. 우리 부모님이 다투시면 보통 잘 해결이 된다.	0	1	2
4. 우리 부모님은 내가 모른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자주 다투시거나 의견이 맞지 않으신다.	0	1	2
5. 우리 부모님은 의견이 맞지 않으실 때 조용히 의논하신다.	0	1	2
6. 우리 부모님은 다투신 후에도 서로에게 화를 풀지 못하신다.	0	1	2
7. 우리 부모님은 내가 옆에 있더라도 자주 서로에게 나쁘게 하신다.	0	1	2
8. 우리 부모님이 다투실 때는 서로에게 나쁜 말이나 욕을 하신다.	0	1	2
9. 우리 부모님은 어떤 일에 의견이 맞지 않을 때 대부분 해결책을 찾아 내신다.	0	1	2
10. 나는 부모님이 다투시는 것을 자주 본다.	0	1	2
11. 우리 부모님이 다투실 때는 큰 소리를 많이 지르신다.	0	1	2
12. 우리 부모님은 다투신 후 보통 금방 사이가 좋아지신다.	0	1	2
13. 우리 부모님은 거의 다투시지 않는다.	0	1	2
14. 우리 부모님은 의견이 맞지 않으실 때 서로에게 소리를 지르시는 적이 거의 없다.	0	1	2
15. 우리 부모님은 다투신 후에도 서로에게 다정하시다.	0	1	2
16. 우리 부모님은 집안에서 서로에게 자주 잔소리와 불평을 하신다.	0	1	2
17. 우리 부모님은 다투시는 중에 물건을 부수거나 던진 적이 있다.	0	1	2
18. 우리 부모님은 다투고 난 후에도 여전히 서로에게 나쁘게 하신다.	0	1	2
19. 우리 부모님은 다투시는 도중 서로 밀치거나 떠민 적이 있다.	0	1	2

## 부록 2: 대처 효율성 척도

♣ 다음은 부모님이 다투실 때 여러분이 어떻게 느끼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지에 관한 것입니다. 잘 읽고 그 정도를 동그라미로 표시해 주세요.

0=아니다, 1=조금 그렇다, 2=그렇다

아니다    조금 그렇다  
                  그렇다

2. 우리 부모님이 다투실 때 나는 나의 기분이 좀 나아지도록 무언가 할 수 있다.	0	1	2
5. 우리 부모님이 다투실 때 나는 어떻게 해야할 지 모르겠다.	0	1	2
8. 우리 부모님이 다투시거나 의견이 맞지 않을 때 나는 대부분 일이 잘 되도록 도울 수 있다.	0	1	2
11. 우리 부모님이 다투실 때 나는 부모님이 그만 하시도록 할 수가 없다.	0	1	2
14. 우리 부모님이 다투실 때 나는 내 자신의 기분이 나아지도록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0	1	2
17. 우리 부모님은 다투실 때 내가 말하는 것은 전혀 듣지 않으신다.	0	1	2

### 부록 3: K-YSR

♣ 다음은 여러분이 겪고 있는 느낌이나 건강에 대해 묻는 내용들입니다.

각 항목을 읽어가면서 만약 지금이나 지난 6개월 이내에 자신이 그 항목에 꼭 들어맞거나 그런 일이 자주 있었다면 2에 표시를 해 주세요.

가끔 그런 일이 있었거나 그러한 경향이 좀 있는 편이면 1에, 전혀 해당되지 않는다면 0에 동그라미로 표시해 주세요

0 = 전혀 해당되지 않는다.

1 = 가끔 그렇거나 그런 편이다.

2 = 자주 그런 일이 있거나 많이 그렇다.

전혀아님    가끔    자주

1. 외롭다고 느낀다.	0	1	2
2. 잘 운다.	0	1	2
3. 고의로 자해행위를 하거나 자살기도를 한다.	0	1	2
4. 나는 내가 나쁜 생각이나 나쁜 행동을 할까 두렵다.	0	1	2
5. 나는 스스로 완벽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0	1	2
6.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느낀다.	0	1	2
7. 남들이 나를 해치려고 한다고 생각한다.	0	1	2
8. 나는 가치가 없고 남보다 못하다고 생각한다.	0	1	2
9.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한다.	0	1	2
10. 나는 신경이 날카롭고 긴장되어 있다.	0	1	2
11. 나는 지나치게 겁이 많거나 불안해한다.	0	1	2
12. 어지럼증이 있다.	0	1	2
13. 나는 지나치게 죄책감을 느낀다.	0	1	2
14. 매우 피곤하다고 느낀다.	0	1	2

15. 의학적으로 밝혀진 원인 없이 나타나는 신체적 문제가 있다.			
1) 몸이 쭈시고 아프다.	0	1	2
2) 두통	0	1	2
3) 메스꺼움	0	1	2
4) 눈의 이상(구체적 내용: )	0	1	2
5) 발진(몸에 뭐가 나는 것) 혹은 기타 피부 이상	0	1	2
6) 배앓이 혹은 복통	0	1	2
7) 구토(구역질, 토하기)	0	1	2
8) 기타(구체적 내용: )	0	1	2
16. 말을 하지 않으려 한다.	0	1	2
17. 나는 숨기는 것이 많고 남에게 속을 털어놓지 않는다.	0	1	2
18. 나는 자의식이 지나치고 쉽게 무안(창피)해 한다.	0	1	2
19. 수줍어한다.	0	1	2
20. 나는 의심이 많다.	0	1	2
21. 자살에 대해 생각한다.	0	1	2
22. 기운이 별로 없다.	0	1	2
23. 나는 불행하다고 생각하거나 슬피하고 우울해 한다.	0	1	2
24. 남들과 관계를 맺지 않으려 한다(친구들과 잘 안 어울린다).	0	1	2
25. 나는 걱정이 많다.	0	1	2
26. 말다툼을 자주 한다.	0	1	2
27. 자랑을 많이 한다.	0	1	2
28. 남에게 못되게 군다.	0	1	2
29. 관심을 많이 끌려고 노력한다.	0	1	2
30. 내 물건을 부순다.	0	1	2
31. 다른 사람의 물건을 부순다.	0	1	2
32. 학교에서 말을 안 듣는다.	0	1	2
33. 해서는 안 될 일을 저지르고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한다.	0	1	2
34. 다른 사람에게 시샘을 잘 한다.	0	1	2

전혀아님 가끔 자주

35. 나는 싸움을 많이 한다.	0	1	2
36. 나쁜 친구들과 어울려 다닌다.	0	1	2
37. 거짓말을 하거나 남들을 속인다.	0	1	2
38. 남을 신체적으로 공격한다.	0	1	2
39. 내 또래보다는 나보다 나이가 많은 아이들과 있는 것을 더 좋아한다.	0	1	2
40. 가출한다.	0	1	2
41. 고함을 많이 지른다.	0	1	2
42. 불을 지른다.	0	1	2
43. 으스대거나 남을 웃기려고 싱거운 짓을 한다.	0	1	2
44. 우리집의 물건을 훔친다.	0	1	2
45. 우리집 아닌 다른 곳에서 물건을 훔친다.	0	1	2
46. 고집이 세다.	0	1	2
47. 내 기분이나 감정은 갑자기 변하곤 한다.	0	1	2
48. 욕을 하거나 상스러운 말을 쓴다.	0	1	2
49. 나는 지나치게 수다스럽다.	0	1	2
50. 남을 잘 놀린다.	0	1	2
51. 나는 성미가 급하다.	0	1	2
52. 남들을 신체적으로 해치겠다고 위협한다.	0	1	2
53. 수업을 빼먹거나 학교에 무단결석하기도 한다.	0	1	2